

위대한 사상가 원효

忽至百年云何不學
一生幾何不修放逸

백년이 잠깐인데
어찌 배우지 아니하며
일생이 얼마라고
닦지 않고 게을리하랴



원효元曉의 저술著述과 사상思想

원효대사는 기이한 행적을 일삼거나, 거사의 행색으로 거리에서 대중 교회에만 힘쓴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일생에 걸쳐 150여 권에 이르는 저술을 남긴 뛰어난 저술가이자 사상가이도 하였다. 그 저술의 폭도 매우 넓어 밀교密教를 제외한 대승불교 경전 대부분에 대한 논소論疏를 남겼다. 그 중에서도 화엄학華嚴學과 유식학唯識學에 관심이 높았지만 『화엄경華嚴經』과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에 관한 저술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수많은 저술을 남겼지만, 원효의 서적 가운데 쓴 시기와 장소를 오롯이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55세 되던 671년 행명사行名寺에서 쓴 『판비량론判比量論』뿐이다.

원효의 무수히 많은 저술과 생애에서 드러난 그의 불교사상은 무엇일까? 앞서 말하였듯이 그가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화엄경』과 『대승기신론』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깨달음, 즉 '이 세상은 오직 마음먹기 나름'을 인식한 것은 중생의 마음이 우주 만물의 근원인 '한 마음一心'이라 가르치는 『기신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대 그를 화쟁국사和諍國師라고 추증할 만큼 원효 하면 '화쟁和諍'이라는 두 글자가 떠오른다. 이는 그의 사상을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화쟁사상은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의 불교적 논쟁을 화해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의 화쟁사상은 원효가 살던 당시나 의천義天(1055~1101)이 화쟁국사라 한 고려시대 뿐만 아니라 많은 갈등과 경쟁이 있는 현대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원효의 '일심'이나 '화쟁' 사상은 단지 책상 앞에서 고민하는 사유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의 위대함은 이러한 사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더 높게 평가받는다. 그의 대중 교화를 흔히 무애행無碍行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사상적 배경에는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 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 고 한 『화엄경』이 있었다.

이렇듯 원효는 수많은 저술에서 자기 나름의 사상 체계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으로 옮긴 인물이었다. 이는 그가 『금강삼昧경론金剛三昧經論』에서 역설했던 수레의 두 바퀴, 즉 이론과 실천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弗云本因也ふ言也以凡性陰而一れと此覺
是ふ本也所立極をきに見性也は因因也是
性閑初れ是れも爲閑一あ也爲爲避けふと立
也更立因立以二あ中閑一あ也爲共才四ふ完
因は因上九陰ふ完也め於九家故主也因陰れ
以ニれ中閑一あ是生因此不完也レ不放化在達
次之又あ行立之言此妄也放疑因立ちみふ完也
詩亦達也完之因陰言退之是也因也性於
因品主也レ因且能不完立此相因山中夜立れ
達比空理行少性不完因持才立あ達家不持持
才ふ它因め程門に教せ因云以劣ふせ口家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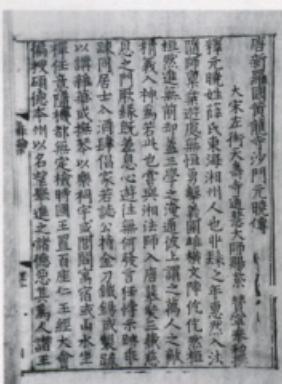
원효元曉의 저술著述과 사상思想

남동신 서울대학교

원효元曉(617~686)는 동아시아불교 역사상 최고의 저술가 중의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도 80부 150여 권에 달하는 폭넓은 저술활동은 한국 불교도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일 뿐 아니라, 동시대에 '백본百本의 소주疏主'라 일컬어진 당나라 규기廉基(632~682)의 저술 33부 약 120권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로 놀라운 숫자이다. 더욱이 저술 하나하나가 심원한 불교철학을 간결 유려한 문체로 조리정연하게 풀이함으로써, 일찍이 「송고승전宋高僧傳」의 찬자인 찬녕贊寧(919~1001)이 '문장의 전장을 영웅처럼 누비다雄橫文陣'라고 칭찬하였을 정도이다.¹⁾ 원효의 저술 활동은 외래 문화인 불교를 이해하며, 나아가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었다.

불교야말로 기원 전후부터 19세기 말까지 장기간에 걸쳐 동아시아인들의 삶과 생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지배적인 문화이자 종교이며 철학이었다. 불교는 기원전 6세기 무렵 인도에서 출현하였으며, 인간 중심의 심원하면서도 보편적인 사유체계를 바탕으로, 운산雪山과 열사熱砂와 대양大洋이라는 지리적 장벽을 넘어 중국으로 전해질 수 있었다. 중국인들은 인도에서 전래된 방대한 불교 문헌을 한자로 번역하였으며, 이들 한역漢譯 경전이 같은 한자문화권인 한국, 일본, 베트남 등지로 전해짐으로써, 비로소 동아시아불교가 성립하였다. 당시 동아시아불교의 중심은 중국이었으므로, 주변국들은 중국으로부터 선진적인 문물제도와 더불어 불교 문물을 다투어 수입하고자 하였다.

불교는 4세기 말에 중국의 남북조로부터 고구려와 백제에 처음 전해졌으며, 신라는 이보다 늦은 5세기 전반에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당시 삼국은 고대국가로 발돋움하면서 문물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후발 주자였던 신라로서는 강력한 이웃인 고구려·백제와 경쟁하면서 동시에 고대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야만 하였다. 그런데 신라는 불교에 적합한 만한 수준 높은 문화를 경험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고유의 문자를 갖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송고승전 원효전 宋高僧傳 元曉傳

1) 『宋高僧傳』 권4 元曉傳「大正藏」 권50, 730쪽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신라가 중국의 불교문화를 소화하고 나아가 독창적인 불교문화를 구축할 수 있었던 데에는, 전사회적인 비상한 열의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열의와 노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효에 의한 경이로운 저술 활동이었다.

여기에서는 원효가 왜 그토록 다종다양한 저술을 남겼으며, 저술을 통하여 무엇을 주장하고자 하였는지, 그것이 차지하는 사상사적 의의는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저술

신라는 6세기 전반 불교를 공인한 직후부터 중국에서 다량의 한역 경전과 중국 승려들의 저술을 수입하였다. 한역 경전은, 석가모니의 설법을 기록한 경경(sutra)과, 석가모니가 정한 수행자들의 생활규범인 윤율(vinaya)과, 경경과 윤율을 연구한 인도 불교학자들의 저술인 논述(abhidharma)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한역된 경율론經律論을 동아시아의 불교학자들이 연구하고 풀이한 저술을 소홀라고 부른다.

신라에서는 7세기를 전후하여 신라 승려들에 의한 불교 저술, 즉 소疏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원효는 이들 선배 세대들의 성취 위에서 출발하되, 중국 불교계의 교학적 성과를 두루 섭렵함으로써, 단기간에 신라의 불교 교학을 질적·양적인 면에서 중국의 그것에 필적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원효의 경이로운 저술 활동은, 7세기 신라불교계의 압축적인 교학의 성취를 잘 보여준다.

원효의 저술은 80부 150여 권으로 추산되는데,²⁾ 이 가운데 대부분이 산실되었다. 온전히 전하는 것은 13부 17권에 불과하며, 부분적으로 전하는 것이 12부 안팎이다. 저술목록을 보면 원효의 사상 편력이 무척 다채로우면서도 뚜렷한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원효의 친찬임이 확인된 소승 계통 저술이 없다는 점은, 그의 주된 관심이 대승 경전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그가 연구한 경전들을 보면, 반야般若, 법화法華, 화엄華嚴, 열반涅槃, 여래장如來藏, 계율戒律, 정토淨土 등의 대승경을大乘經律과, 중관中觀 및 유가유식瑜伽唯識 관련 대승논서大乘論書를 망라하고 있다. 즉 원효의 학문적 관심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당시 중국불교계에서 연구되고 있던 불교학 가운데 밀교密教를 제외한 대승불교大乘佛教 전반에 걸쳐 있었다.

물론 대승大乘 경전 중에서도 원효가 더욱 관심을 가진 분야는 있었다. 저

2) 원효의 저술을 소개한 경略류經錄類와 근대 이후 선학들의 목록 작성에 대해서는 李梵弘, 「元曉의 摺述書에 대하여」, 『哲學會誌』, 10(1984) 및 殷貞姫, 「원효의 대승기신론소 별기」(1991) 부록 1 「원효의 저술」 등에 잘 정리되어 있다. 본고는 이를 선형 연구 성과와 더불어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編,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1976), 16~37쪽 및 金相鉉, 『역사로 읽는 원효』(1994), 고려원 185~192쪽을 참조하여 목록을 작성하였다. 원효 저술에 관한 최근의 가장 종합적인 연구 성과로는 福士慈穎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각종 경略總錄을 검토하여 원효의 저술로 인정되는 것을 74부 정도로 추산하였다. 福士慈穎, 『新羅元曉研究』(2004), 東京 大東出版社, 147~171쪽 참조.

술의 분량만 가지고 볼 때, 단일 경전으로는 『화엄경華嚴經』과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관련 저술이 가장 많다. 『기신론』 관련 저술이 8부 10권에 이르며, 그가 『기신론』의 소의경 전所衣經典으로 간주한 『능가경楞伽經』에 대한 2~3부 10여 권까지 합하면, 원효가 이를 기신론 계통의 경전을 얼마나 중시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이는 여래장사상如來藏思想에 대한 그의 특별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 『화엄경』 관련 저술로는 8부 약 20권이 있다. 원효사상에서 차지하는 기신론사상과 화엄사상의 비중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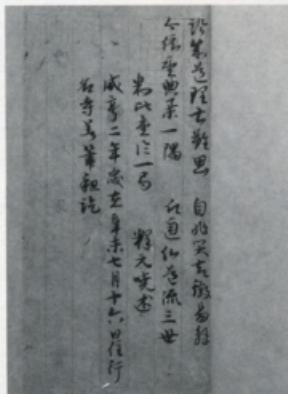
단일 경전은 아니지만 원효가 관심을 집중한 사상으로는 유식唯識과 정토사상淨土思想을 들 수 있다. 신·구역新·舊譯을 합하여 유식 관련 저술은 14부 40여 권에 달한다. 유식학의 정치한 논리는 원효가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 하는 데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정토사상 관련 저술도 9부 10여 권이나 되는데, 정토사상은 원효의 대중교화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폭넓은 대승불교 전반에 걸친 학문적 관심과 더불어 저술형식상의 특징도 주목할 만하다. 그의 저술 80부를 보면, 2/3 가량이 단권單卷들이어서, 원효가 의식적으로 글을 짧게 쓰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원효가 가장 중시한 『기신론』도 ‘글은 적되 뜻은 많게少文多義’라는 취지 아래 방대한 불교 사상을 단 한 권으로 정리하였다. 원효는 이러한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여, 저술할 때 ‘글은 간략하되 뜻은 풍부하게文約義豐’하고자 노력하였다.

저술의 분량이 적어지면, 저술의 형식 내지 체재도 달라진다. 그래서 원효의 저술 명칭을 보면, 경전의 종지宗旨를 요약하는 ‘종요宗要’ 류가 14, 15부나 된다. 또한 체재를 알 수 있는 5부 중에서 4부는, 주석을 달아서 설명하는 소문消文이라는 장을 설정하였으면서도 실제 서술에서는 이를 과감하게 생략하였다. 대신 원효는 저술의 성격 차이에 상관없이, 서문序文에서 해당 경전의 대의大意를 특유의 문체로 서술하였는데, 현재 약 13편의 대의문이 전하고 있다. 이들 대의문은 원효의 경전관經典觀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

원효가 처음부터 원효는 아니었다. 그도 숱한 시행착오와 각고의 노력 끝에 자신의 사상을 완성시켰다. 그런데도 오늘날 원효가 어떻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만들어갔는가를 알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의 방대한 저술 가운데 상당수가 유실되었으며, 남아있는 저술도 『판비량론判比量論』을 제외하고는 저술연대를 일체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남아있는 저술 상호간의 인용관계를 조사하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저술의 상대적인 순서는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저술의 인용관계를 보면,³ 전체에서 『기신론』 관련 저술이 중요한 비



판비량론 判比量論

판비량론은 함현威亨 2년(671) 7월 16일 행명사行名寺에서 찬술하였는데 원효의 저술 중 유일하게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기신론별기起信論別記』가 가장 이른 시기에 찬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기신론』의 주요 논점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저술을 위한 예비 작업의 성격을 띤다. 저술시기의 상한 선은,『기신론별기』가 인용한『유가론瑜伽論』의 번역 및 신라로의 전래 등을 감안하건대, 대략 650년대 전반 무렵이 아닐까 한다. 650년대 전반이라면 원효가 깨달음을 계기로 중국유학을 단념한 직후에 해당한다. 당시 김춘추와 김유신의 신진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제도개편을 단행하면서, 불교계에서는 자장慈藏(590~658)이 도태되던 시기였다. 원효는 한 마음—心을 중심으로 불교 사상을 종합한『기신론』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면서, 현장玄奘(602~664)의 새로운 번역서를 폭넓게 참조하였는데,『별기』는 그러한 초기의 연구 노트에 해당한다.

대체로『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이 원효의 다른 저술에 인용된 사례가 없음을 근거로, 이를 원효 만년의 저술로 비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존 저술의 인용실태만 가지고 볼 때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효의 화엄관계 저술이 산실된 현재 그렇게 단정하기도 어렵다. 역시『금강삼매경론 金剛三昧經論』은 문무왕 때의 저술로 보이며, 오히려 화엄관계 저술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들보다 앞선 시기의 저술로 추정된다. 화엄관계 저술인『보법기普法記』와『화엄종요華嚴宗要』에서는 의상義相(652~702)을 인용하여 수전법數錢法의 유래를 밝힌 것으로 보아, 의상이 귀국한 670년 이후 그를 통해 중국 지엄智儼의 화엄학을 접하면서 새로이 찬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미완성본인『화엄경소華嚴經疏』를 포함하여 이들 화엄관계 저술은 원효 후반기 저술로 추정된다.

원효는 요석공주瑞石公主와의 사이에서 설총薛聰(?~?)을 낳은 것을 계기로 환속하였으며, 이후 평생을 거사居士로 살았기 때문에, 승려 제자를 양성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의 사상은 제자가 아니라 저술을 통하여 전해지게 되었는데, 그의 저술은 신라는 물론 중국, 일본, 심지어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까지 전해졌다. 중국 화엄학華嚴學을 집대성한 법장法藏(643~712)이 원효元曉의 저술에 크게 도움 받았음을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일본 또한 나라시대奈良時代인 8세기 중반에 신라로부터 다량의 불교 문헌을 수입하였는데, 이 시기 일본에서 필사된 원효 저술만 최소한 42부 94권에 이른다.⁴⁾

한편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1055~1101)은 불교역사상 최초로 동아시아 승려들의 불교 저술인 장소章疏을 총집대성하는 대규모 불사佛事에 착수하였다. 1090년 그 예비 목록으로『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을 간행하였다. 이 목록은 당시 고려에서 유통되고 있던 현행본을 정리한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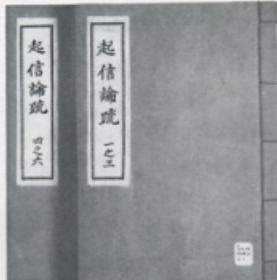
3 인용 관계에 근거한 저술연보 작성은 다음의 연구 성과가 참조됨

李箕永,『統一新羅時代의 佛敎思想』,『韓國哲學史』 권上, 偏韓國哲學會 編, 1987, 200~203쪽.

石井公成,『新羅佛教における「大乘起信論」の意義—元曉の解釋を中心として—』,『如來藏と大乘起信論』(平川彰 編, 1990), 東京 春秋社, 551~553쪽.

남동신,『원효』(1999), 새누리, 186~192쪽.

4) 石田茂作,『奈良朝現在一切經疏目錄』,『奈良朝佛教の研究』(1930), 東京 東洋文庫, 94~148쪽



대승기신론 大乘起信論

'해동소海東疏'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여기에 원효의 저술이 44부 87권(또는 83권)이나 수록되었다.⁵⁾ 의천이 이처럼 원효의 저술을 중시한 것은, 환속하여 더 이상 승려가 아니었기에 불교사에서 잊혀졌던 원효를 재발견하고 그를 국사國師로 추존하는 일련의 불사佛事를 단행한 사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천의 유지를 이어서 12세기 말 경주 분황사에 세운 비석이 바로 「분황사 화쟁국사비芬皇寺和諍國師碑」이다. 이 비의 음기陰記는 원효의 저술 목록을 정리하였다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이 비는 안타깝게도 정유재란丁酉再亂 무렵 철저하게 파손되면서, 그 전모는 영원히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파손된 비편을 17세기에 탁본한 것이 전해지고 있으며,⁶⁾ 그 탁본에 해당하는 비편이 1976년 분황사 경내 서편에서 수습되었다.⁷⁾ 이를 탁본과 비편을 종합하면, 원효 저술목록의 편린이나마 엿볼 수 있다. 비편에는 최소 13부의 저술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부의 저술 이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8부 가운데 「유가사지소십권瑜伽師之疏十卷」은 의천이 작성한 목록에는 없던 것이다. 이는 의천이 목록을 작성한 이후에도 원효의 저술목록을 계속 증보하였으며, 증보된 저술목록을 「분황사화쟁국사비」 음기에 새겼음을 말해준다.

원효의 저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대승기신론」2권과 「금강삼매경론」3권, 「화엄경소」8권으로, 「원효 3대소」라고 부를 만하다. 현존하는 「대승기신론소」2권은 「해동소海東疏」라는 별칭으로 더 잘 알려졌으며, 동아시아불교계에서 고래로 「기신론」에 관한 3대 주석서로 평가받았을 뿐만 아니라, 불교사상가로서의 원효의 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준다. 역시 현존하는 「금강삼매경론」3권은 신라불교사에서 훈치 않게 출현한 위경偽經인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에 대한 주석서이다. 원효는 신라 중대 왕실의 지원에 힘입어 「금강삼매경」을 최초로 강의하고 최초의 주석서를 남길 수 있었다.

원래 명칭은 「금강삼매경소金剛三昧經疏」였지만, 중국 불교 승려가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으로 격상시켰다고 한다. 원효가 찬술 도중에 불을 껐었다고 전하는 「화엄경소」는, 원효의 저술로서는 보기도문 대작으로서 원래 8권본이었으며 역대 중국 화엄종 승려들에 의하여 중시되었다. 고려시대에 의천이 원효의 또 다른 저술인 「화엄종요」와 합본하여 10권 「화엄경소」로 재편집하였는데, 현재는 서문과 권3 일부 만이 전할 따름이다.

5) 『韓國佛教全書』4, 680~697쪽.

6) 선조宣祖의 후손인 담선군開善君 이우季魯가 탁본을 수집하여 「대동금석첩大東金石帖」을 편집하였는데, 경성제대京城帝大 교수였던 속酉龍를 거쳐 현재 일본 天理大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亞細亞文化社, 「大東金石書」(1976), 136쪽, 137쪽.

7) 黃壽永, 『韓國金石遺文』(제4판, 1985), 一志社, 488~489쪽. 현재 동국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비편은 음기의 마지막에 해당하여, 마름모꼴로 깨져 있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으로 피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상

원효가 대승불교 전반에 걸쳐 화쟁주의의 관점에서 저술을 남겼기 때문에, “원효의 사상은 이렇다”라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원효사상의 핵심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원효를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 중이다. 그런 가운데 학자들의 논의는, 원효의 생애와 저술에서 ‘일심一心’, ‘화쟁和諍’, ‘무에無碍’라는 세 가지 개념이 특별히 강조되었다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3대 개념을 중심으로 원효의 사상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1. 한 마음一心

마음은 석가모니 이래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 방대한 저술활동을 통하여 원효가 추구한 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였다. 특히 원효의 유심론적 세계관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경전은 『기신론起信論』과 『화엄경華嚴經』이었다. 『기신론』에서는,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주만물의 근원인 한마음이라고 선언한다. 원효는 무덤 속에서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이루면서, 마음이 생기면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면 동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 『心生故種種法生, 心滅故龕墳不二』라고 노래하였다.⁶ 이 오도송悟道頌은 『기신론』의 구절 ‘심생칙종종법생心生則種種法生, 심멸칙종종법멸心滅則種種法滅’을 차용한 것이다. 즉 원효가 깨달은 이치는, ‘모든 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一切唯心造’라는 『기신론』의 유심론적 세계관에 다름 아니었다.

『기신론』에 따르면, 한마음에는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의 두 측면이 있다고 한다. 진여문이란 일체의 존재가 생멸함이 없이 본래 고요한 상태를 가리킨다. 이를 본래부터 깨달음의 상태(本覺)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바로 중생이 깨달을 수 있는 철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 대개는 깨달음에서 유리된 채 현실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깨달을 수 있다는 이상과 깨닫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 양자 사이의 괴리를 설명하고자 마련된 것이 생멸문이다. 즉, 생멸문이란 한마음의 본체인 본각本覺이 무명無明의 작용에 따라 생멸하는 측면을 가리킨다. 중생들은 무명無明(또는 번뇌煩惱)에 의해 한마음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불각不覺의 상태에서 육도六道를 윤회전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생들이 타고난 어려如來의 성품이 무명無明에 의하여 가려진 상태를 어려장如來藏이라고 한다. 비유하자면, 중생은 누구나 마음 속에 빛나는 태양(本覺)을 지니고 있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의 중생들은 태양이 구름(무명, 번뇌)에 가리워져 어둠 속을 혼에게 된다(不覺). 비록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나누어서 설명은 하였지만, 이 두 측면은 동전의 양면처럼 떼려 해야 뗄

6) 송대 선종죽 문한이 「중경篇宗祖篇」이나 「임간록林間錄」에서는 원효가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았다고 전한다(金刺頭, 『역사』에는 원효, 1994, 민족사, 95~100쪽). 반면 계율중에 속하는 친녕贊寧의 『송고승전宋高僧傳』, 원효전元曉傳에서는 오도설화脫曇說話의 소재로 무명 자체를 들고 있어서, 다른 선승들이 10세기 무렵 중국에 전해지고 있었던 듯하다.

수 없는 관계로서 한마음을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수행을 통하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고 한마음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이와 같이 원효의 일심사상이 「기신론」에서 출발하지만, 「화엄경」에 근거하여 일심사상—心思想을 최종적으로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일심에서 '하나'는 단순한 수식어라든가 숫자 개념이 아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체라는 개념이 되기도 한다. 그물코 하나를 잡아끌면 나머지 전체가 떨려오듯이, 개개의 사물은 나머지 전 우주와 서로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하나와 전체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 그것이 「화엄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일즉다 다즉 일—即多即一'이다. 그것은 우주만물의 본질적인 평등성을 강조하는 말이기도 하다. 원효는 바로 이러한 「화엄경」의 평등논리를 빌어와서 '하나'의 의미를 무한대로 확장시켰다. 그는 '하나'와 '전체'가 아무 걸림없이 드나드는 경지를 보법普法이라고 보았는데, 한 마음—心에 근거하는 일체의 행동—一切行, 즉 무애행無碍行이 성립할 수 있는 철학적 근거를 여기에서 찾았다고 하겠다.

원효는 불교의 각종 유파에서 내세우는 불성佛性, 여래장如來藏, 본각本覺, 반야般若, 암마라식薩摩羅識, 아뢰야식阿賴耶識 등을 한마음의 하위체계에 포함함으로써, 한마음을 최고의 개념으로 격상시켰다. 한마음은 공空과 유有를 초극한 만물의 근원이다.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마음의 유전流轉에 불과하며, 중생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 모든 중생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부처란 칭정무구淸淨無垢한 한마음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이며, 중생이란 무명無明과 번뇌煩惱에 의해 한마음이 가려지고 왜곡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모든 중생은 무명과 번뇌를 제거함으로써 한마음의 근원을 회복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다. 중생 각자의 현실적 처지에 따라 성불成佛의 방편方便은 무수하나, 그 모든 것의 귀착점이 한 마음—心이기에, 결국은 그들이 가는 길도 하나—道요, 타고 가는 수레도 하나—乘요, 깨달음의 경지도 하나—覺요, 그 맛도 하나—味인 것이다. 하나이기 때문에, 원효는 승僧과 속俗의 구분을 초월하고자 하였으며, 구성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대립과 갈등보다 이타적利他的인 자비행慈悲行을 권장하였다.

원효의 일심사상—心思想에는 이와 같이 인간 중심의 세계관, 평등한 인간관, 그리고 이타적利他的인 인간관계가 내포되어있다. 그것은 불교경전에 대한 전면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성립된 원효의 독자적인 사상체계일 뿐만 아니라, 재래의 무교邪教가 아닌 자연(또는 신) 중심의 세계관, 차별적인 인간관을 극복한 새로운 사유체계라는 점에서 사상사적 의의를 갖는다.

2. 화쟁和諍

원효 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화쟁은 일찍부터 원효사상의 핵심개념으로 거론되어 왔다.⁹⁾ 고려 숙종肅宗(재위1095~1105) 때 원효를 국사로 추봉하면서 올린 호가 바로 '화쟁'이었다. 20세기 전반 최남선崔南善이 한국 불교의 성격을 '동불교通佛教'라고 규정짓고 그 대표적 사례로 원효를 거론한 이래로,¹⁰⁾ '원효 사상=화쟁'이라는 등식은 오랫동안 학계의 통설이 되다시피 하였다. 실제로 화쟁은 원효 저술을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화쟁和諍은 회통會通, 화회和會 등과 더불어 불교적 논쟁을 화해시킨다는 의미로 원효 저술에 종종 사용되고 있다. 원효 당시의 주요한 논쟁점 10 가지에 대하여 원효가 화쟁을 시도한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은 원효의 대표 저술로 손꼽힌다.

원효가 반복하여 화쟁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그가 사상적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살았음을 역설한다. 당시 중국은 학파불교에서 종파불교로 넘어가고 있었다. 예컨대 수~당초에 걸쳐 활약한 천태지의天台智顗(538~597), 길장吉藏(549~623), 현장玄奘 같은 쟁쟁한 학승들은 자신들이 정의正義라고 생각하는 특정한 경론經論을 중심으로 불교교학을 체계화하면서, 다른 불교 교리나 사상을 폄훼하거나 심하면 이단시하였다. 원효는 이들의 불교 사상을 받아들 이면서도, 교리 논쟁을 바라보는 관점은 달리하였다. 원효는 각각의 주장들이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쟁론에 빠진 사람들이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진리로부터 멀어졌지만, 이설이 존재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즉 원효는 장님 이 코끼리 만지는 격에 비유하여, 각각의 이설이 갖고 있는 진리의 일면성을



십문화쟁론 목판 十門和諍論 木版

십문화쟁론은 원효가 당시에 주요한 논쟁점 10가지에 대해 화쟁和諍을 시도한 저술이다.

9) 金相法 1995, 「元曉 和諍思想의 研究史的 검토」,『佛教研究』11 : 2000, 「元曉研究」, 民族社, 208~234쪽 재수록.

10) 崔南善, 「朝鮮佛教—東方文化史上における於其地位」,『佛教』74(1930), 12~18쪽.

11) 南東信, 「동아시아佛教와 元曉의 和諍思想」,『元曉學研究』10(2005) 참조.

인정하였다. ‘화쟁주의의和諍主義’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러한 태도는, 원효의 저술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바, 화쟁주의는 원효 사상의 특성이다 이후 한국불교의 중요한 전통이 되었다.

원효 화쟁사상의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시대 불교 내부의 교리적 갈등 내지 논쟁이 먼저 밝혀져야 한다.¹²⁾ 교리 논쟁 중에서 특히 7세기 중엽 동아시아불교계의 최대 논쟁은 현장玄奘의 신역불교 성립으로 촉발된 신·구역불교新·舊譯佛教 사이의 갈등과 대립이었다. 현장 자신은 구역불교에서 출발하였지만, 17년에 걸친 인도印度 구법求法을 계기로 자신이 직접 인도에서 전래한 호법護法의 학설을 중심으로 하는 신유식新唯識을 정통불교로 선양하고 기왕의 구유식舊唯識이나 중관中觀 및 일승사상一乘思想을 모두 불완전한 교리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현장을 이어 제자 규기窺基(632~682)가 신유식을 종지로 삼는 법상종法相宗을 개창함으로써, 신·구역불교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으며, 그 대립은 곧바로 동북아불교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갔다. 당시 현장계는 도도한 중국불교와의 흐름에 맞서 정통 인도불교로의 복귀를 꾀하고자, 정통과 이단을 준별하고 정통을 내세우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방법을 견지한 것이다.

그런데 현장의 인품과 능력에 매료된 당태종이 현장을 후원하였기 때문에, 현장이 주도하는 신역불교가 동아시아로 급속히 확산되어 나갔다. 그 과정에서 오랜동안 중국 인민의 심성에 깊숙히 침투해온 구역불교 진영과의 갈등과 대립은 불가피하였다. 동아시아불교계를 사상부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간 신·구역불교 사이의 대립에는 크게 세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같은 대승불교 중에서 일승—乘대 삼승三乘의 대립이며, 둘째는 같은 삼승 안에서 중관中觀대 유식唯識의 논쟁이며, 셋째는 같은 유식학 안에서 신·구유식 간의 갈등이었다.

원효는 신·구유식의 갈등과 삼승·일승의 갈등에 대하여는 구역불교의 우위 하에 신역불교의 교리를 폭넓게 받아들이고자 하였으며, 대승불교의 양대철학인 중관中觀(空空)과 유가유식瑜伽唯識(유有) 사이의 갈등에 대하여는 양자를 『대승기신론』의 일심사상의 가치 하에 양자를 화쟁和諍시키고자 하였다. 즉 원효는 구역불교의 입장에서 신역불교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화쟁주의적 방법을 취하였다. 7세기 말의 당나라 승려 법장은 이러한 원효의 성과 위에서 비로소 동아시아불교의 정점인 화엄학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³⁾

12) 원효元曉가 법장法藏의 교학에 끼친 영향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로는 横濱慧日, 「元曉の二隕義について」, 『東方學報』11-1(1940)을 볼 수 있다.

3. 무애無碍

원효가 단지 화쟁을 위한 화쟁만을 역설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다양한 이 설 간의 화쟁에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까닭은 중생제도라는 종교 본연의 사명을 몸소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한마음은 하나의 마음이면서 동시에 모든 중생들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기에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다. 만물의 근원인 한마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평등하다. 그렇지만 중생들의 현실적 처지는 천차만별이다. 일체의 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애행은 외견상 중생만큼이나 다양하지만, 한마음이라는 근원으로 돌아갈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원효는 자신이 천촌만락을 누비며 중생을 제도할 때 차고 다니던 홍동박을 '무애無碍'라고 이름 지었는데, 무애無碍는 『화엄경』의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는 유명한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즉 원효의 중생제도행의 경전적 근거가 바로 『화엄경』이었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근원이 다같이 '한 마음—心'이라는 점에서, 그들은 원칙적으로 평등하다. 교회敎化의 담당자인 보살과 교화의 대상인 중생을 나누는 기준은, 혈연이나 힘, 재산, 나이 등등과 같은 세속적인 가치가 아니라, 불교적 자질(根機)과 수행의 정도였다. 그 중에서도 세속적인 삶을 영위하면서 동시에 불교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사(在家菩薩)를 교화의 주체로 설정하였다. 승려와 속인이라는 인위적인 구분을 초월하여 중생을 제도할 것을 역설한 유마거사維摩居士야말로 원효에게 귀감이 되었다. 그는 거사로 돌아가, 각자의 현실적인 처지는 천차만별이지만 본질적으로 평등한 중생들의 내면적 각성을 촉구하였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불교적 유토피아(淨土)를 지금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원효가 교화하고자 더욱 관심을 쏟은 사람들은 기왕에 불교계로부터 소외 당하고 있던 일반민이었다. 실제로 그는 화전경작민이라든가 짚신장수와 같은 직접생산자층을 대상으로 아미타정토신앙을 권장하였으며, 그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정토로 왕생往生할 수 있는 자격을 크게 완화시켰다.

실질적인 중생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실천적 규범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교단 운영을 위한 계율은 자장慈藏에 의해서 제정되었는데, 그는 승僧과 속俗을 엄밀하게 나누는 소승계小乘戒에 입각하여, 석 가모니교단이 지녔던 수도자 집단으로서의 청정한 면모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생제도행을 표방하는 원효로서는, 출세간出世間(승僧)과 세간世間(속俗)을 인위적으로 구분하고 출가 승려 중심으로 교단을 운영하는 자장의 방식



유마거사 維摩居士

원효는 중생을 제도하는데 유마거사를 귀감으로 삼았다

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원효는 계율을 충실히 지키는 대신, 오히려 파격적이라 할 만큼 사뭇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갔다.

원효의 파격적인 무예행은 궁극적으로는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거사불교居士佛教'를 지향하는 운동이었다. 기존의 교단질서를 뒤흔드는 파격만큼이나, 위민정책爲民政策을 추진하며 새로 출범한 중대中代(654~780) 집권세력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양자는 정도正道(정법正法)로써 민을 교화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 공감대는 원효와 요석공주와의 파계라는 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짐으로써 결국 원효 스스로 환속하게 되지만, 동시에 그는 중대 집권세력이라는 강력한 후원자를 얻음으로써 자신이 추구하던 승속불이僧俗不二의 거사불교를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원효의 무예행은 후대까지도 많은 불교도들에게 깊은 영감을 제공하였다. 13세기 후반 몽골과의 오랜 전란으로 철저하게 파괴된 고려불교의 재건을 주도하게 된 일연—然은『삼국유사』를 편찬하면서, 원효전의 제목을 '원효가 얹 메이지 않다(元曉不羈)'라고 붙였으며, 그의 대중교화활동에 대하여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조차 염불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다 원효의 덕분이다"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원효가 살았던 7세기는 삼국시대에서 삼국통일시대로 이행하는 전환기였다. 당시 신라인들의 삶은 엄격한 골품제骨品制 아니면 날로 치열해지던 삼국 간의 전쟁에 의하여 좌우되었다. 혈연이나 폭력과 같은 비이성적인 논리가 횡행하는 현실에 대하여, 원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알 길이 없다. 분명한 것은 불합리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을 불교에서 찾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원효가 출가하던 무렵 신라는 지배층 중심의 불교이해라는 중고기불교中古期佛教의 기조가 한계에 봉착하면서, 불교계 일각에서는 일반민에 대한 종교적 관심을 고취하려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다. 한편 당唐의 장안불교계長安佛教界에서는 현장玄奘의 신역불교新譯佛教로 인해 신·구역불교新·舊譯佛教 사이의 교리논쟁이 촉발되고, 그것이 다시 전체 동북아불교계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었다.

원효는 이러한 대내외 불교계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인식의 지평을 대승불교 전반으로 확대하여 80여 부 150여 권의 저술을 남겼다. 폭넓은 저술활동을 통하여, 그는 한 마음—心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사상체계를 확립하였는데, 일심사상은 유심론적 세계관과 평등한 인간관을 잘 보여준다. 원효는 한마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던 교리를 적극적으로 화해시키려는 화쟁和諍의 관점을 표방하는 한편,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이타행利他行, 즉 무

13) 고려시대 원효에 대한 재인식 내지 재평가에 대하여

에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崔柄憲, 「高麗佛教界에서의 元曉 理解—義天과 一然을 중심으로—」, 『元曉研究論議』(1987), 국토통일원, 全相試, 「高麗時代의 元曉 認識」, 『정신문화연구』, 17-1월권 54호, 1994).

許興植, 「高麗에서 元曉의 推抑과 宗派別 論客」, 『元曉思想』, 원효연구원 편저, 논문집, 1998), 신우당, 南東信, 「元曉와 芬皇寺 麟趾의 史的 推移」, 『分華사 의 재조명』(신라문화재학술발표회논문집20, 1999).

애행無碍行을 직접 실천에 옮겼다. 그런 점에서 그는 석가모니의 무쟁정신無
諍精神과 대승불교의 보살도菩薩道를 온전히 회복시켰다고 할 수 있겠다.

역사적 인간으로서의 원효는 686년(신문왕 6) 3월 30일 70세를 일기로 파
란만장한 생을 마쳤다. 그는 환속하였기에 교단 내에서 자신의 문도를 양성할
수 없었으며, 그 때문에 그의 사상은 통일신라불교계에서 차츰 잊혀져갔다. 대
신 그의 불교사상은 사람이 아니라 저술을 통하여 다른 나라로 전해져서 높은
평가를 받거나 후대인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였다. 예컨대 그의『기신론소』
는 법장法藏 아래 중국 화엄학의 전개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으며, 일본불교계
가 8세기 이래의 공유쟁론空有爭論을 극복하는 데는『판비량론』을 비롯한 다
수의 원효의 저술이 길잡이 구실을 하였다. 더욱이 그의 화쟁사상을 집대성한
『십문화쟁론』은 인도로 전해져서 범어로 번역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한국불교사에서 원효에 대한 재평가 작업은 11세기 후반 대각국사大
覺國師 의천義天(1055~1101)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의천은 침체된 고려의 교
학불교, 즉 해동교海東教의 재건을 필생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원효를 역할
모델로 삼았다.¹³ 그는 입적하기 직전 숙종에게 건의하여 원효를 화쟁국사和諍
國師로 추봉하였는데, 환속하여 거사居士로 일생을 마친 사람을 국사國師로
추봉한다는 것은 한국은 물론 중국불교사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나아
가 의천의 원효 추앙에 영향받아서 화엄종華嚴宗, 법상종法相宗, 천태종天台宗
등 3대 종단이 모두 자신들의 교학적 연원과 관련하여 중요 인물로 원효를 지
목하였다. 이러한 원효 재평가 움직임은 고려 후기에도 지속되어서 12세기 말
에는 경주 분황사에 「분황사화쟁국사비芬皇寺和諍國師碑」가 건립되었으며, 마
침내 원효를 교조로 하는 해동종海東宗이 개창되기에 이르렀다. 불교 전래 이
래 근대에 이르기까지 근 1천 5백 년의 한국불교사에서 특정한 개인—그것도
출가자였다가 환속한 인물—을 교조로 하는 종단의 출현은 전무후무하였다.



분황사화쟁국사비좌 芬皇寺和諍國師碑座
고려 1190년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와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는 인도印度의 마평馬鳴(100~160?)이 지은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을 원효가 주석한 책이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소』 외에 『대승기신론별기大乘起信論別記』1권, 『대승기신론대기大乘起信論大記』2권, 『대승기신론요간大乘起信論要簡』, 『대승기신론종요大乘起信論宗要』, 『대승기신론사기大乘起信論私記』 및 『기신론일도장起信論一道章』 각 1권 씩을 저술하였지만 소疏와 별기别記를 제외하고 남아 있지 않다.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논지가 자신의 학문관과 삶의 자세와 매우 일치함을 느끼고 감명을 받은 듯하다. 『대승기신론별기』의 대의문大意文에 ‘모든 논서의 으뜸이요, 모든 쟁론을 평정시키는 주인이다’고 극찬하였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원효의 사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개념은 바로 한마음—心이다. 원효는 한마음은 만물의 본원이며 세간世間과 출세간出世間의 일체법一切法을 포섭한다고 보았다. 일체법이란 중생의 마음이므로 한마음은 곧 중생의 마음이었다. 이를 일심사상—心想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사상이 잘 드러난 저술이 바로 『대승기신론소』이다.

『대승기신론』에 대한 주석서는 원효의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중국 법장法藏(643~712)이 저술한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 혜원慧遠의 『대승의장大乘義章』 및 원효의 『대승기신론소』를 ‘3대 소’라 일컫는다. 원효의 소를 특별히 ‘해동소海東疏’라고도 한다. 그런데 법장의 의기義記는 해동소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혜원의 의장義章은 위천威撰이라는 설이 있다. 더욱이 중국의 주석서가 현학적인 주석에 매달렸다면 원효는 근본정신을 찾아내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에 대한 주석서로는 원효의 ‘해동소’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大乘起信論疏記會本

원효元曉

36.9×26.2cm

조선 후기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大乘起信論疏記會本卷一

馬鳴菩薩造論 梁天竺三藏真諦譯

海東沙門元曉疏并別記

將釋此論略有三門初標宗體次釋題名其第三者依文顯義

第一標宗體者然夫大乘之爲體也肅焉空寂湛爾沖玄玄之又玄之豈出萬像之表寂之又寂之猶在百家之談非像表也五眼不能見其軀在言裏也四辯不能談其狀欲言大矣入無內而莫遺欲言微矣包無外而有餘引之於有一如用之而

起信論疏記卷一

一

空獲之於無萬物乘之而生不知何以言之強號之謂大乘。

別記其體也曠今其若太虛而無其私焉蕩今其

若巨海而有至公焉有至公故動靜隨成無其私故染淨斯融染淨故眞俗平等動靜成故昇降參差昇降差故感應路通眞俗等故思議路絕思議絕故體之者乘影響而無方感應故祈之者超名相而有歸所乘影響非形非說既超名相何超何歸是謂無理之至理不然之大然也

대승기신론소기회본

大乘起信論疏記會本

원효元曉

23.6×15.2cm

중국 1899년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광서光緒 25년(1899) 중국에서 간행된 원효의『대승기신론소』이다. 이『기신론소』는 한국에 유입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목판에 재각하여 간행한 예도 있다.



기신론소

起信論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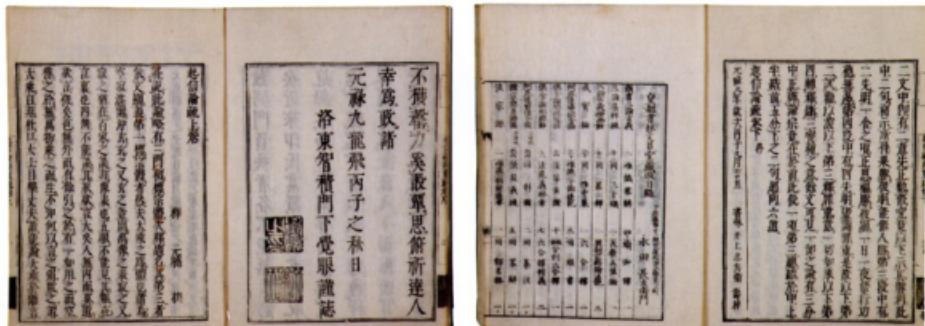
원효元曉

25.6×18.5cm

일본 1696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일본 교토京都 정상충명위井上忠兵衛에서
1696년에 간행한 원효의『기신론소』이다.



대승기신론별기

大乘起信論別記

원효元曉

25.8×18.5cm

일본 1781년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1781년 일본에서 간행된 「대승기신론별기」이다. 2권 1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승기신론별기」는 원효가 「대승기신론소」보다 앞서 쓴 것으로서, 「기신론소」의 초고라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의기

大乘起信論義記

법장法藏

30.9x19.6cm

고려 말~조선 초 목판본

김인영

당나라 법장法藏(643~712)의 「대승기신론의기」는 원효가 지은 「대승기신론소」의 해석을 그대로 담습하고 있다. 다만 원효가 아래장사상如來藏思想과 현장玄奘의 유식학을 화회和會·화쟁和諍하려고 한 것에 반해, 법장은 현장의 유식학을 폐제하였다. 이 책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대승기신론소

大乘起信論疏

법장法藏

31x21.0cm

조선 1528년 목판본

김민영



菩薩圓之修行得入佛智故
在菩薩今依此法得成淨信
此法得淨信是故衆生應勤修學
隨順持說如後所說也於中上迴此功德
如法性普利一切衆生界
大乘起信論疏卷下終

대승기신론소 목판

大乘起信論疏 木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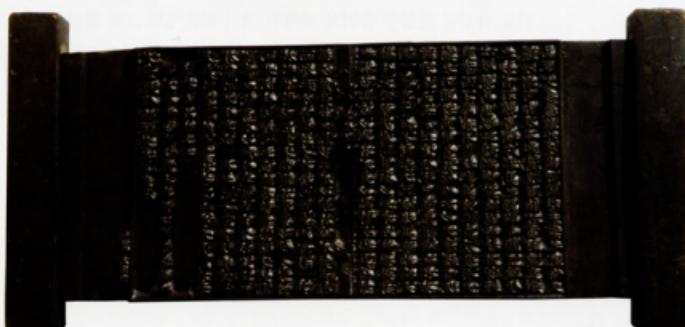
법장法藏

27.0x56.0cm

조선 1681년

통도사성보박물관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00호



화엄경소華嚴經疏와 화엄경종요華嚴經宗要

『화엄경華嚴經』에 대한 원효의 주석서는 원래 8권이지만, 고려시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1055~1101)이 『화엄경종요』와 합하여 10권으로 묶었다. 현재는 서문과 제3권인 여래광명각품如來光明覺品 1권만 남아 있다.

『삼국유사三國遺事』 「원효불기元曉不羈」조에 따르면, 원효는 분황사에서 『화엄경소』를 찬술하다 「심회향품十迴向品」에 이르러 불을 꺾었다고 한다. 「심회향품」은 『화엄경』의 권14부터 권22에 걸친 부분으로 60화엄경에 1/4내지 1/3 분량에 해당한다. 원효가 필생의 대작을 미완성인 채로 중단한 이유는 평소 '말은 적게 뜻은 풍부하게文約義豐'라는 저술 원칙에도 위배되고, 중생제도를 강조하는 심회향품의 내용이 원효의 가치관과도 부합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원효의 화엄사상이 형성되는데 의상의 기여도 컸다. 원효는 670년 경 중국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의상에게 중국 화엄교학의 성과를 전해 들었을 것이다. 반대로 원효가 의상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다. 군여均如(923~973)의 저술에 의하면 대·소의 원용무에圓融無碍함에 관해 의상은 원효의 논리를 받아 들였다고 한다.

『화엄경』에 기반한 원효의 사상은 『화엄경소』 대의문에서 잘 나타난다. '무릇 막힘이 없고(無障) 걸림이 없는(無碍) 법계의 법문은 법이 아니면서 법 아닌 것이 없고 문이 아니면서 문 아닌 것도 없다.無法而無不法 非門而無不門'라 하였고 '하나도 아니고 많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의 법이 바로 일체의 법이요, 일체의 법이 바로 하나의 법이다. 不一不多球 一法是一切法 一切法是一法' 라 한다. 이처럼 원효는 『화엄경』에서 자신의 한마음(一心)사상을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다. 원효는 표제로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이라 불렸는데 '법계가 무한하여 대방광大方廣이요 행덕行德이 끝없어 불화엄佛華嚴이리'고 풀이하였다.

이처럼 원효는 인생 후반기에 『화엄경』 연구에 열중하여 마침내 화엄사상을 중심으로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하였다. 후에 중국의 역대 화엄학승들이 원효의 『화엄경소』를 높이 평가하고 원효 자신이 화엄종 승려로 자처한 적이 없음에도 그를 화엄종에 소속시켰다. 특히 일본 불교계에서는 일찍부터 원효를 화엄 승려로 간주하여 화엄종주華嚴宗主로 여기기도 하였다.

晉譯華嚴經疏序

原夫無際無碍法界法門者無法而無不法非門而無不門也爾乃非大非小非促非著不動不靜不一不多由非大故作極微而無違以非小故爲大虛而有餘非促之故能含三世劫波非著之故舉體入一剎不動不靜故生死爲涅槃涅槃爲生死不一不多故一法是一切法一切法是一法如是無障無礙之法乃作法界法門之術講大密懶之而入也三世諸佛之所出也二乘四果之聲育凡夫下士之所驚驚者人得入是法門者即能不死

過一念普現無邊三世復以十方世界廣入一微塵內斯等道術豈可思議然依彼門用看此事猶是一日三出門外一人共坐堂內惺然之境有何奇特況乎須謂入於尔子者係未入於大會也一方丈內守衆座者室內於萬物而內入甚寬何足爲難子君若乃鳳皇翔于青雲下觀山岳之翠門伯居于大海嶺蓋川河之狹學者入乎此經普門方知會學之離體也然短翮之鳥庇山林而萎形微鷺之魚潛羽流而安性所以淺近教門亦不可已之耳今是經者斯乃圓滿無上頓教法輪廣開

法界法門顯示無邊行德行德無畏而示之階階故可以達彼矣法門無涯闊之的故可以進退矣入彼門者即無所入故無所不入也修行此德者即無所得故無所不得也於是三賢十聖無行而不圓三身十佛無德而不滿其文都都其義蕩蕩豈可得而稱焉所謂大方廣佛華嚴者法界無限大方辰也行德無邊佛華嚴也非大方無以廣佛華非佛華無以廣大方所以雙契方華之事表其廣嚴之宗所言經者圓滿法輪周聞十方無餘世界遍轉三世無際有情極輒窮常故曰徑

是大意以標題目故首達大方廣佛華嚴經也

金剛三昧經論序
夫一心之源離自無而揚淨三空之海融真俗而諸然皆無融二而不一獨淨離達而非中非中離達故不有之去不即往無不無之相不即住有不一而融二故非具之事未始爲俗非俗之理未始而具也融二而不一故其俗之性無所不立度津之相莫不備馬頭邊而非中故有無之法無所不作是非之義莫不周焉爾乃無破而無不破無立而無不立可謂無理之至理不然之大惑矣是謂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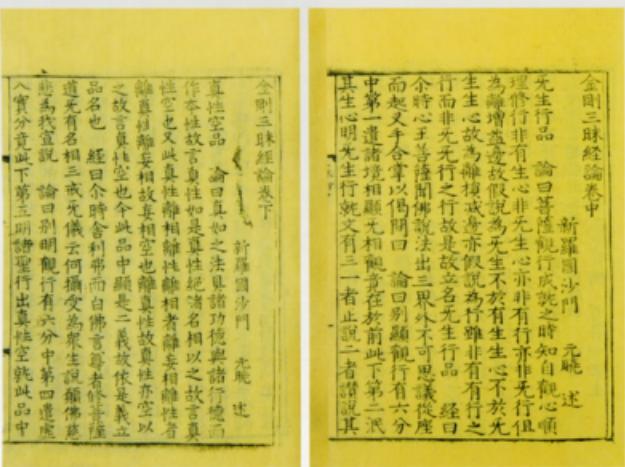
『금강삼매경』은 중국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에서 당唐 초기까지 중국 불교에서 제기된 공空사상, 화엄, 재가불교在家佛教 등의 교리를 다룬 불교경전이다.

이 경전이 언제 신라에 유포되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송고승전』『원효전』에는 『금강삼매경』이 신라에 유포된 경위와 이를 원효가 주석하고 강설하는 과정에 대한 신이神異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왕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외국에 보내온 사신이 바다를 건너던 중 용궁龍宮에 가 용왕에게 『금강삼매경』을 전해 받게 된다. 이 경전은 대안성자大安聖者에 의해 흩어진 차례가 맞추어지고 원효에 의해 주석된다. 처음에 원효는 5권의 주석본을 찬술하였지만 도난당하자 3일 만에 다시 3권의 주석본을 지어 황룡사皇龍寺에서 대중들에게 강설講說하였다.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은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의 주석서로,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강삼매경론』은 우선 경의 대의大意를 설명하고 경종經宗을 밝힌 다음, 경의 제목을 풀이하고 경문을 해석하는 순서를 취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이론과 실천은 수레의 두 바퀴,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한 쪽을 잊으면 옳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 깨달음의 차별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각자의 수행법을 통해 하나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지적인 기반이 없는 일반 민중들도 일상 속에서 성불할 수 있음을 역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금강삼매경론 권 중 · 하

金剛三昧經論
원효元曉
40.5×30.5cm
1960년대 인출 목판본
삼성출판박물관



金剛三昧經論

원효元曉

40.5×30.5cm

1960년대 인출 목판본

신성출판박물관

金剛三昧經論卷上

新羅國沙門

元曉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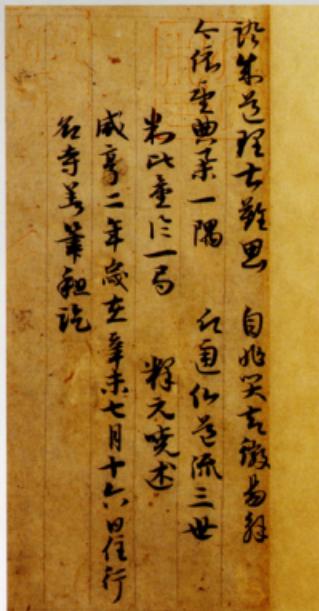
此經略開四門分別初述大意次辨經宗三釋題
四消文義第一述大意者夫一心之源離有無而
淨三空之海融真俗而湛然湛然融二而不一獨淨
離邊而非中非中而離邊故不有之法不即住無不
無之相不即住有不一而融二故非真之事未始無
俗非俗之理未始為真也離二而不一故真俗之性
無所不立染淨之相莫不備焉離邊而非中故有無
之法無所不作是非之義莫不周焉余乃無破而無
不破無立而無不立可謂無理之至理不然之大惑

판비량론判比量論

『판비량론判比量論』은 원효의 저술 중 유일하게 저술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판비량론』 말미에 「합성咸亨 2년(671) 7월 16일 행명사行名寺에서 판비량론을 탈고하다」는 기록이 있어 그가 55세 되던 해에 저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원래 1권 25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후반부 약 19장 105행 가량 남아 있을 뿐이다.

『판비량론』이란 비량比量을 비판하는 논서이다. 비량이란 당시의 인도 유학승인 삼장법사三藏法師 현장玄奘(602~664)은 그의 제자들이 고안했거나 개작한 논증 방식인데, 원효는 이 책에서 그 논증 방식을 비판하고, 새로운 논증 방식을 제시하였다. 원효는 그동안 아무도 비판하지 못하던 현장의 논증식에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옮바른 논증식을 창안하여 동아시아 학승들의 교리연구에 이론서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책은 671년 원효가 저술하고 나서 오래지 않아 중국과 일본에 전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중국에는 7세기 말엽에 일본에는 8세기 이전에 전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일본에 전해진 『판비량론』은 에도시代江戸時代 말기 조각조각 나뉘어졌는데, 그 일부만 일본 오타니대학大谷大學에 남아있다.



판비량론

判比量論

원효元曉

27.2x17.2m

8세기 필사본

일본 오타니·나카대학 박물관



이장의二障義

『이장의二障義』는 사람의 성불成佛을 방해하는 번뇌煩惱과 그 번뇌를 끊는 방법에 대한 책으로, 1권으로 되어 있다.

원효의 다른 저술들이 경經, 윤律, 논論 삼장三藏에 관한 주석서이거나 종요서宗要書인데 비해 『이장의』는 그의 독자적인 연구서이며 원효 특유의 치밀한 논리가 돋보이는 역작이다.

원효의 윤리사상을 이해하려면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 알려진 『대승기신론소』, 『대승기신론별기』, 『금강삼매경론』과 아울러 『이장의』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승기신론소』 등에서 '자세한 것은 이장장二障章을 보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이장의』는 이를 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장의』를 '기신론이장장起信論二障章'이라고도 부른다.

이장의

二障義

원효元曉

23.2×16.2cm

일본 에도시대江戸時代 필사본
일본 오타니大谷대학 박물관



說此兩說我何法捕者若論法界衆生佛性之我
非即證界處不離證界處而立傳說法界法處所
捕此義具如十二門論說若論我更習所生假
我十一識中自他差別識攝非即證界處不離證
界處而立得入行證法界法處所攝如說說如
是假我不可說言與彼諸法無不世性破行證之
內何法攝者入於不相應法而攝廿四中乘同分
攝尤之名爲衆生種類然此衆生及諸法非如所
說有人有法而非是元故作是說耳但二部道理

唯佛所窮但依仰信師頂斟酌也。

二障義卷終

釋元曉撰

二障義

二部義六門分別一釋名義二出體相三辨功能

四攝諸門五明治持六總選擇

原一釋名言二郭者一煩惱郭之名惑郭三所知

都之名智都戒有異門名煩惱等及子智等煩惱
都者貪瞋等惑煩惱爲性過起現行惱亂身心故

名煩惱此當體從初能立名又復能惑界內煩惱

之報過惱有情全離寐靜故名煩惱是烏固中說

慈尊未流應理因實宗

英實戒四
辟五

慈尊未流應理因實宗

英實戒四
辟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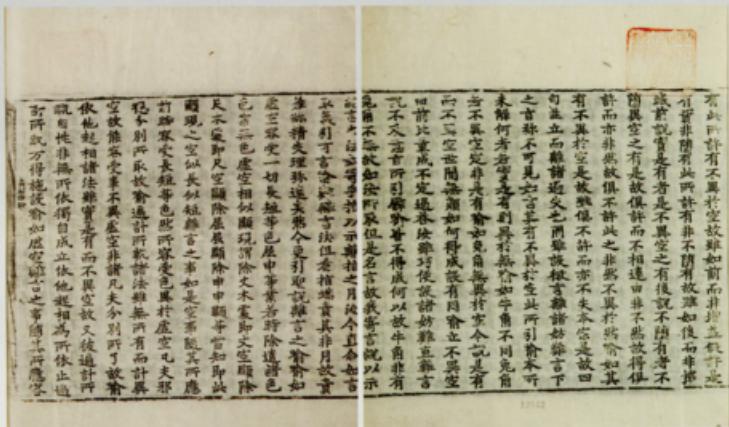
십문화쟁론十問和諍論

『십문화쟁론十問和諍論』은 원효가 활동하던 당시 불교계에서 논쟁이 되었던 여러 문제들을 10가지로 분류하여 화쟁和諍을 시도한 저술이다. 2권 1책 10문으로 되어있는데 원효의 화쟁사상이 충결 산된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산실되고 『서당화상비誓幢和尚碑』에 『십문화쟁론』의 서문 일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해인사海印寺에 원문 일부의 목판이 발견되었다.

원효가 살았던 7세기 중엽은 대내·외적으로 갈등과 전쟁으로 혼란스러운 격동기였다. 신라는 고구려·백제와의 전쟁으로 민심이 흥흉해졌고 고품제骨品制로 인해 갈등이 증폭되고 있었다. 한편 중국 불교계에서도 인도印度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현장玄奘이 신역新譯 불경을 펴내면서 구역舊譯

십문화쟁론

十門和諍論
원효元曉
35.5×30.0cm
1960년대 인출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십문화쟁론 목판

十門和諍論 木板
원효元曉
전광 23.5×55.5cm
고려
해인사海印寺



경전에 기반한 기존 불교계佛教系와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원효는 모든 분열과 갈등을 포용하는 길을 태하였고 그의 불교 저술을 통해 화쟁사상과 그 실천방법을 제시하였다.

고선사『서당화상비』에 따르면『십문화쟁론』은 인도에까지 전해져 범어梵語로도 번역되었다고 한다. 13세기 중반 일본에서 유포되었던『원효사조元曉事蹟』에도 원효가 화쟁론을 지었는데 진나陳那의 문도가 당에서 와서 원효가 죽은 후 화쟁론을 가지고 천축天竺으로 돌아갔다'는 기록도 있어 이를 뒷받침 해준다.

십문화쟁론

十門和諍論

원효元曉

35.5×30.0cm

1960년대 인출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십문화쟁론 목판

十門和諍論 木板

원효元曉

전과 23.5×55.5cm

고려

해인사海印寺



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

『아미타경阿彌陀經』은 아미타불阿彌陀佛과 극락정토極樂淨土의 장엄莊嚴을 설명하고 극락왕생極樂往生의 길은 아미타불을 염불하는데 있다는 극락정토왕생極樂淨土往生 사상에 관한 경전이다.

이『아미타경』을 주석한 것이 바로『아미타경소阿彌陀經疏』이다. 이 책은 대의大意, 종차宗致 및 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의의 첫머리에 원효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를 읊겨보면 다음과 같다.

“무릇 중생의 마음의 본마방인 참 마음은 근본 성품과 모양을 떠나 바다와 같고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으므로 원용圓融하지 않는 상이 없으니 동서의 처소가 따로 없으며, 바다와 같으므로 지켜야 할 성품이 없으니 움직이고 고요할 때가 따로 없다 번뇌煩惱에 물들어 나쁜 세상의 물결에 따라 길이 흐르기도 하고 혹 깨끗한 인연을 따라 번뇌를 끊고 오래도록 열반에 들기도 하니 이와 같은 움직임과 고요함이 한바탕 큰 꿈과 같으며,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극락정토極樂淨土와 사바세계娑婆世界가 본래 한 마음이고 생사와 열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대정신수대장경 아미타경소

大正新修大藏經 阿彌陀經疏

원효元曉

26.5×19.3cm

1924년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小生分書寫開闢春日於西偏房識
屋也
大法師閱覺

釋曰
No. 1719 (6, 35, 365)
■ 佛說阿彌陀經疏

唐東華叢書國沙門元曉宗

釋曰
此新三品分明初發大心者舍大報無宗義

釋曰
第三則入文釋第一述大意者舍生
心之爲心也難知難性也海螺空故
無相不體何有策度也如母女無性是
守也易持靜之時乃成我執業五觀而
後或承淨四法身真若斯勤靜皆

是大愛以覺空之無持淨也上淨國本來
清二省者舍因淨乃至無淨也得入此
身大亦爾其然相持淨者或說王

門如水淨說二內門八地已上菩薩得
入門如淨大乘謂之淨門淨有第三
種苦受門上苦淨得入此門如深淨經
說此正經門淨無苦者入此門無必定
樂矣不定樂也兩淨門淨無苦者入此門

是第四門今此經第二種淨說此第五第四正定
是三聚淨道門淨無苦者入此門無定樂
是大愛以覺空之無持淨也上淨國本來

一心生死無始無終無明無照然無之體取之
無能作之參去之見所大審無能取之
無能滅所淨言教義或說此如舍尼善道

釋曰
此經是說淨無作之見所大審無能取之
無能滅所淨言教義或說此如舍尼善道

무량수경종요無量壽經宗要

『무량수경無量壽經』은 『아미타경阿彌陀經』, 『관무량수경觀無量壽經』과 더불어 아미타정토신앙阿彌陀淨土信仰의 3대 경전 중 하나이다. 이 경전의 내용은 대체로 극락세계가 어떻게 성립되었고 무량수무량광불無量壽無量光佛이 나타난 인연을 밝히는 한편 극락세계의 장엄함과 그 곳에 사는 보살들의 공덕을 묘사하고 있으며, 보살행을 담고 아미타불을 믿고 귀의하는 사람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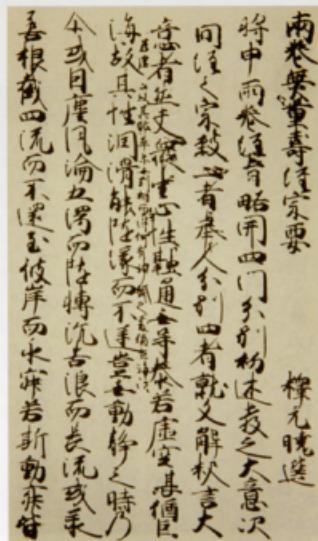
원효의 『무량수경종요』는 강승개康僧鎧(?~?)가 번역한 『무량수경』의 내용을 요약하여 주석한 것으로 써, 대의大意, 종치宗致, 의혹생疑惑生 및 취문해석取文解釋으로 이루어졌으나, 현재 취문해석 부분은 없어졌다. 내용은 정토淨土와 예토穢土, 생사와 열반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본래일심本來一心’에 있다고 하였다. 이 저술로써 신라불교에서 정토사상을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무량수경종요 필사본(영인본)

無量壽經宗要 筆寫本(影印本)

원효元曉

일본 교토京都 선림사禪林寺



무량수경종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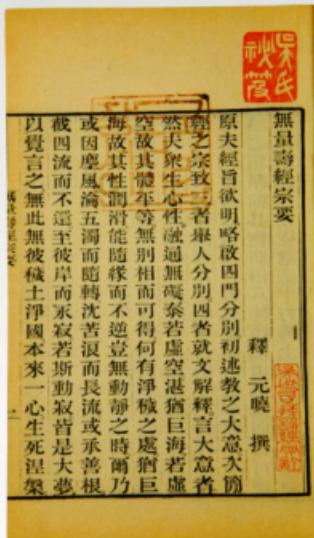
無量壽經宗要

원효元曉

24.0×19.3cm

조선 후기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無量壽經宗要

釋 元曉 撰

原夫經旨欲明略啟四門分別初述教之大意大意者釋之宗致二者舉人分別四者就文解釋言大意者然夫衆生心性融通無礙泰若虛空湛淵巨海若虛空故其體平等無別相而可得何有淨穢之處猶巨海故其性潤滑能隨緣而不逆豈無動靜之時爾乃或因塵風滯五濁而隨轉沈苦浪而長流或承善戒四流而不還至彼岸而永寂若斯勤寂皆是大夢以覺言之無此無彼穢土淨國本來一心生死涅槃

열반경종요涅槃經宗要

『열반경涅槃經』에 대한 원효의 개요서로 2권 1책이다. 『열반경』은 원래 『대반열반경大般涅槃經』이라 일컬는데 부처가 일생동안 설한 법문을 총 정리한 최후의 경전이다. 이 경전에서 석가모니부처는 항상 계시고 열반은 항상 즐겁고 깨끗하며 모든 중생에게는 다 부처님의 성품이 있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대의에서 원효는 “이 『열반경』이야말로 불법의 큰 바다요, 대승의 비밀스런 창고이다. 그 가르침은 측량하기 어렵고 실로 끝없이 광활하고 바닥없이 깊기 때문이다. 바다이 없으므로 다하지 아니함이 없고 끝이 없으므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뜻 경전의 부분을 통괄하여 온갖 흐름을 일미一味로 귀일시키며 부처님의 뜻의 지극히 공정함을 열어 백가百家의 논쟁을 화합시킨다”고 칭찬하였다.

1124년에 필사한 책의 원본이 일본 낚코日光의 린오사輪王寺에 소장되어 있고 사본이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에, 서문은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있다. 내용은 먼저 대의를 설명하고 『대반열반경』이 바다와 같이 넓고 끝이 없는 것인어서 여러 경전의 부분을 통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 백가百家의 여러 논쟁을 화합하게 한다고 하였다.

열반종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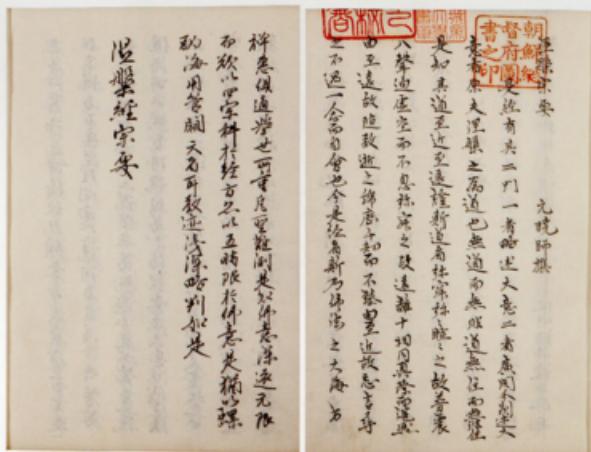
涅槃宗要

원효元曉

27.0×19.3cm

조선 후기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법화경종요法華經宗要

『법화경法華經』에 대한 개요로서 1권으로 된 자술이다. 『법화경』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의 약칭으로 7권 28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승경전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경의 하나로 천태종天台宗의 소의경이다. 삼승三乘이 결국 일승一乘에 귀임한다는 회상귀임사사會三歸一思想이 주요한 내용이다.

『법화경종요』는 일본에서 간행된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에 수록되어 있고, 서문은 『동문선東文選』에 실려 있다. 그 내용은 삼세불三世佛 출현의 의미를 설명하고, 세간世間과 열반涅槃은 겹고 별개의 세계가 아님을 설명하고 있다.

통문선 권83 법화경종요서

東文選 卷83 法華經宗要序

元始

34.0×21.5m

조선 후기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東文選卷之八十三

卷之三

東文選卷之八十三

卷之三

妙法蓮華經者斯乃十方三世諸佛出世之大乘
九道四生成入一道之弘門也文彌深無妙不示
極解惑理參無法不空文辭巧敷華而含實我理
深參實而帶權理深察者無二無別也辭巧敷者
開揚示實也開揚者開門外三車是權中達實城
生化樹下成道始能扶闇滅度非欲示實者示
生滅是吾子二乘皆當作佛塵數不足量其命劫

火不能燒其土。是謂文辭之巧妙也。言無二物者，故言無列者。三種平等者，樂諸身同。一揆世間，涅槃求解。二際故是謂圓解。保妙也。斯則文義。妙無非玄則。離亂之報。乃妙法。摧花開葉。集參形無染之實體。達究竟無分別法。妙無何三數者。一至人至冥。詎能詎長處。況於人之不易。諸王卒於此。謂漫出之良難。於是如來引之以報。或單車於此。光示有待之危。身駕白牛於齋。音無無限之長。公斯乃借一以破三三除而。捨魔威以斥種種。但

而脩亡是法不可云言辭相安儻當然庸煩焉
離齊不知何以言之強謬妙法並舉是以分生今
聞之者尚愛輪王釋梵之虛經耳一切之人直得
無上菩提之記況乎受持演說之福豈可思議所
量子俄舉是大慧以標題目故言妙法蓮華經也
涅槃經需要序
原夫涅槃之爲道也無道而無非道無住而無不
住是知其道至近至遠證斯道者彌寂彌圓彌喧
之故晉震八音過度空而不息彌寂之故遠離十
相同異際而湛然自至遠故隨教造之餘歷千鉢

미륵상생경종요彌勒上生經宗要

『미륵상생경 중요彌勒上生經宗要』는 『미륵상생경彌勒上生經』에 대한 원효의 주석서로, 1권으로 되어 있다.

『미륵상생경』에 근거한 신앙을 특별히 미륵상생신앙彌勒上生信仰이라 하는데 죽은 다음에 미륵보살이 다스리는 도솔천에 태어나 구원받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이에 비해 『미륵하생경彌勒下生經』과 『미륵성불경彌勒成佛經』에 근거한 신앙을 미륵하생신앙彌勒下生信仰이라 하는데 석가모니 열반 이후 56억 7천만년이 지나서 도솔천에 있던 미륵보살이 이 땅에 내려와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고 3회에 걸쳐 중생제도를 위한 설법을 할 때, 그 자리에서 태어나 구원받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특히 미륵하생신앙은 삼국시대에 성행한 신앙이다.

원효의 「미륵상생경종요」는 10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의에서 이 경을 받아 도솔천을 관찰하고 살피면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 또 미륵상생경이 소승경小乘經이니 대승경大乘經이니라는 논란에 대해 대승경이라 판단하였고, 미륵보살이 태어난 곳을 밝히고 그 출현 시기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대정신수대장경 마륵상생경종요

大正新脩大藏經 強勒上生經宗要

월간 80

265×193cm

19244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第一法宣意者蓋蘭陵
不遠惡其勢尤字由不
其是上得釋人復見其
者平不可得是知之也
之深者也故曰誠矣
誠矣論說之適切也
誠矣庶幾之心得也
誠矣庶幾之心得也
三界論說之佈度莫
李劫灰上聞闇而下照
天經述少分之說也
此亦一說也

之凡庸者，是大言以阿其所好也。若人受人所好，則其言必失矣。故曰：「苟得於人，則失於己。」

대혜도경종요 大慧度經宗要

『대해도경종요大慧度經宗要』는 당의 현장玄奘(602~664)이 번역한 『대반야바라밀경大般若波羅蜜經』 600권에 대한 개설서이다. 원효는 반야를 '혜慧'로, 바라밀다를 '도道'로 풀이하여 '대해도경'이라 불렀다. 『대해도경종요』에서 원효는 특히 반야般若을 설명하는데, '반야 즉 지혜란 본래 밝은 것으로 어리석고 어두운 것을 없애어서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이루어진 현상을 바로 보기만 하면 그것이 곧 실상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대정신수대장경 대혜도경종요

大正新修大藏經 大般度經宗要

卷之三

265×19.3cm

1924L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若其人者，惟五六十卷而存長短，謙少勤多，不以爲
十卷，即他法家之書也。中華書局所印，故此一
說不足。至十七、八傳，皆付他筆，固無可考。
若是二、三卷，又非朱先生取於于闐國，固當
是品也。但此說是也有七、八卷則是隨筆，云
有四、五卷者，則是上中與下典故也。云
上中與典不同說者，也是有五、六卷者，若
從天王、武帝、成帝、王莽、新莽、董祀、王莽
被殺者，有七、八卷。二、三者說文天子問者，
三者皆有七、八卷者。又云：「凡文者，義理
通體，五事並舉，莫忘間道者。」後從天王、武
帝、成帝、王莽、新莽、董祀、王莽被殺者，
皆是。或云：「若其本末，則是別經解。」云五、六
卷者，則為別經解。第一說也。若其依仁王經解
第一說也。若其依仁王經解者，則是初學者，
者已。曰：「五、六卷者，一者從天王，二者從
三者皆有之，文有十公卷，何得後多？故少耶？」
大品中，不數地圓地四寸金剛輪數，是故於
後中云，所以照眼，輪會中開法也。

王實公余
許此經者
地有緣無
雖難明可
初無名可
詳言之
可得而知
始以不作
相招者固
相招者固
爲義先走
不可觸犯
用口赤舌
者謂法華
大品經法華
釋名曰
第一德大
無至不至
無相無非
妄相無真

신라 역사 인물 특별전 1 元曉大師 159

해심밀경소解深密經疏

『해심밀경解深密經』에 대한 원효의 주석서이다. 『해심밀경』은 불교의 유식사상唯識思想의 근본경전으로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심밀경解深密'은 깊고 은밀하게 얹힌 것을 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경전은 마음에 따라 인간사 만가지가 얹힌 상태로 전개된 것을 명쾌하게 해명하고 있다.

『해심밀경』에 대한 주석서는 신라 원측圓測(613~696)의 것이 대표적이며 원효의 소疏는 『동문선東文選』에 서문만 남아 있다.

동문선 권83 해심밀경소서

東文選 卷83 解深密經疏序

원효元曉

21.2×34.2cm

조선 후기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영락본업경소瓔珞本業經疏

『보살영락본업경菩薩瓔珞本業經』에 대한 원효의 주석서로 상권은 결실되었다. 「보살영락본업경」은 출가보살의 수행단계에 관한 대승계大乘戒로 전문을 8품으로 나누고 있다.

원효의 주석서는 제3품 하반부터 주소註疏를 달고 있다.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論」과 같은 원효의 저술에 자주 인용되는데, 이책에서 원효는 「법망경梵網經」 보살계菩薩戒의 결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동문선 권83 영락본업경소서

東文選 卷83 瓔珞本業經疏序

원효元曉

21.2×34.2cm

조선 후기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斯經之大意也良由不然之大體故能說之語妙
契理中無理之至理哉所論之宗趣上方外無所
不破故名金剛三昧無所不立故名攝大乘經一
切義宗無出是二起故亦名無量義宗且舉一日
以題其首故言金剛三昧經此

本業經疏序

居矣二誦中道乃無可違之詳言法門遂無可
門之理無可道故不可以有心行無可門故不可
以有行為然以大海無津汎舟掛帆能渡虛空無
礙羽翼而高翔是知無道之道斯無不違無門

之門則無非門無非門故事事皆爲入玄之門無
不違故處處成是歸源之路歸佛之路甚夷而無
人能行入玄之門無然而無人能入復由世間學
者著有傳無故也著有相若持有待之危身獲無
限之法相數數而無已逐名而長流虛空無者皆
莫知之前毫釐生解之教門而無解揚音而
不學說故如來無緣大悲爲彼二親今入佛道說
此兩卷璡法門欲使是流者止遊八不之坦路
摧七慢之高心指辟者悟學大入之明門伏五住
之間辟於是備架福想而攝能破十佛法大障雙
運止觀二翼高翔乎法性虛空斯焉本業之大意
也其爲教也文理俱精音極妙而辭逸文甚括而
語詳何嘗而不徹宿事詳諦而理窮窮困果之際
流究凡聖之始終照千佛之森羅明一味之洪通
全乃大性六悉除八合之廣要三觀三諦實六百
之玄宗二土二身帶十方而普現一道一果含萬
德而都融然後乘虛元之寶乘虛三界之故宅開
菩薩之本行示六重之璡境故言佛蘊瓔珞本業
經也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成本持犯要記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成本持犯要記』는 보살계菩薩戒에 관한 원효의 계율 해설서로 1권으로 되어 있다. 보살계菩薩戒는 대승불교의 보살이 지켜야 할 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 『우바새계경優婆塞戒經』, 『범망경梵網經』 및 『보살영락경菩薩落經』 등에서 설설해지고 있는데, 원효가 이러한 경전들을 두루 섭렵한 후 계율에 대한 그의 윤리관을 제시한 것이 『보살계본지범요기』이다. 이 저술은 어떤 경전을 주석하는 형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을 뽑아 기록한 책이다.

보살계본지범요기

菩薩成本持犯要記

원효元曉

25.6x18.5cm

일본 1687년 목판본

일본 오타니大谷대학 도서관



寛元二年十一月廿四日模功畢

勸進大安寺僧信恩

所藏舊本治平急當屬利刪氏令壽

于梓願

般若寺轉法輪藏

元祿元年

戊辰十一月吉日

田中庄兵衛梓

戒爲因性雖不可得而諸佛果必藉戒因故
言諸佛之本原也戒爲果性雖不可得而戒
要藉苦提心因故言菩薩之根本也問戒相
如是甚深難解解之猶難况乎修行故知如
前所說行相唯是大抵菩薩所修不聞諸類
發意所行卷一上正卷如汝問言菩薩從初
發意已來常無所得法因無所得法故後
布施持戒乃至因無所得法故修智慧此答
意者若使彼行由未曾假難可行故今不條

者今不冒故後亦不後如是不久跡在其難
故念從初仰習其難習行漸增轉成其易如是
謂新行發趣大意究竟持犯器明如是
仰依聖典尔人粗述戒藏開要門
昔爲法界燃一燈順用傳燈周十方
四句三聚戒開滿如意五修藏成辦
遠離二過滅諸罪等於一味處方外

持犯要記一卷

內卷六
2736
1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발심수행장 發心修行章』은 비록 706자에 불과한 책이지만 불교에 관한 전문강원 사미과沙彌科에서 교과목의 하나로 쓸 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한 초보자에게 좋은 참고가 되는 원효의 저술이다. 이 책의 내용은 많은 중생이 번뇌의 화태문火宅門에 윤회하는 것은 탐貪·진瞋·치癡 삼독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이것을 끊고 수행을 하라고 주장한다. 행동과 지혜를 갖춤은 마치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고 스스로 이름과 남도 이름과 함은 마치 새의 두 날개와 같은 것이라 하여 지행智行의 병행과 자리이타自利利他 및 계를 중히 여길 것을 권장한다.

발심수행장

發心修行章

원효元曉

22.1x14.9cm

조선 1566년 목판본

보현사普賢寺 간행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重如佛體。介於物人靈界。萬物不變。法王子高音告言。吾聖松深谷行者所接飢渴木根。其飢渴處。或水。則其渴情更甘。或火。則其煩惱亦時止。必有無助。猶若以爲念佛事。或爲歡心。并歸如水無慾。大心能勝如切禁。未食念息至百年。而何不覺。生氣何不修放。達種心中變。是名沙門。不恋世間。

要拿出家行者。羅網拘彼家皮。凡人忘懷。墮入龍蛇。地才發舌。品第才諸佛。是人生悲憂心。故無道行。生山澤者。是鬼是人。生歡喜心。猶有不樂無樂。在行者。如實的這。而不起行持。有勤行無智識者。欲往東方。而向西行。有傭人。所行雲水。作飯與宿。而行然後作飯。失知。叟食同慈。說法。學法而改面心行。看且聽。如草二。

利他如鳥兩翼。得禪頭。如併耳。不不極越。應盡耳。母得食。鳴头不違其聲。亦不貴重。應慚愧。半人惡毛虫。不無淨樂。有情沙門。不辨。貴賤。算世間。唯求空天。上戒為善。梯是。故破。為他福。如折翼鳥。飛翔空。自罪末脫。他還不能。空無戒行。他供給無行。空身養無利益。無常浮合。惜不保。誰失德。誰易失苦。猶子座永。

背欲樂行者。心淨諸天共讚道。人間色香。神捨離四大。急散不保父。舍今日夕矣。頃行朝於世。樂後。舍何。食者於一忍長樂。何不辭。放道人。食者。羞耻。食者。是君子。而笑。過言不直。食者。不已。第二無盡。不斬。食者。此事無限。世事不捨。捨無除絕。心不起。今日不盡。盡惡日多。明日無盡作。喜日少。今年不盡。無限煩惱。來年無盡不

進。喜接時移。移經。日暮。月晦。月移。移。到死。阿波車不行。若人。不悟。則生懈怠。起。亂滅衆生。不知。過日。方。然。治家。生。不修身。必。有。怨。復。何。平。當。遠。惡。平。莫。遠。急。平。快。心。章。終。

野雲自警序
主人公聽我言。我得道。空門。機。始。尚。輪。苦。趣。中。汝。自。無。已。未。至。于。今。生。持。當。舍。塵。世。落。病。而。入。三。途。之。苦。輪。不。修。諸。善。而。沉。四。生。上。業。悔。身。墮。六。職。故。武。廣。惡。趣。則。極。幸。極。苦。心。背。一。乘。成。大。生。人。道。則。佛。脩。佛。復。人。亦。尋。得。人。身。目。見。佛。復。不。世。嗚。呼。痛。水。諦。過。難。難。當。

위대한 스승 원효

普為法界燃一燈
願用傳燈周十方

두루 법계를 위해

한 등불을 밝히오니

원진대 이 등불 전하여

온 세상 밝히소서

其可盡而不當乎遂授位富軾以行狀曰汝其銘之臣謙不獲命退而歎曰人臣觀之時於而祖述之不幸短命而其所樹立如此予思有言自誠而明者其是類矣師諱釋煦俗姓王氏字子中甫任益自勤告早夜疏研務博覽強記而無常師道之所存則後而學之每督首教觀及頃漸本來無津涯雖老師宿德皆自以爲不及聲名未聞時謂法門有宗匠美工未七月乙酉教書宣王在位革二年是宋元豐七年春正月入內誠請上會群臣議皆以無不可師於許之而群臣議確依違上龍至明年四月庚午夜留書上王及太后率弟子壽介繼服至貞未朝之意皇帝命主客員外郎蘇注廷導之秋七月入京師啓聖寺以中書舍人范百祿爲碩學堪爲師範者兩街推薦誠師至是僧統樞衣下風欲行弟子之禮誠師三緇而後受之乃付之印謂難矣願同志一乘同修萬行以游華藏海者吾之願也於是僧統請問云云歎曰韓百祿如見誠公之禮源公嚴賤而坐僧統進曰甚甲仰慕道誼以日爲歲不憚險艱百舍來謁願開金鐵有問有答盡其睿容源公因知州蒲公益之請入南山慧因院開講周譯經僧統施錢營齋威七千五百餘卷及還國又以金書大經三本歸之以祝聖壽慧因本禪院院爲講院特免朝峰至秀州真如寺見楞嚴疏重序佛記慨然歎之以金屬寺僧修葺楊公曰睿公今日始

원효는 환속 후 대중 교화에 힘썼기 때문에 교단敎團을 만든다거나, 법을 전한 제자弟子를 두지 않았던 것 같다.『서당화상비誓幢和上碑』에는 아홉 명의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다고 전하나, 원효를 기리는 비석이 원효 입적 후 곧바로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인지 의문스럽다.『삼국유사三國遺事』에 나오는 문선文善, 사복蛇福, 엄장嚴莊 등이 원효와 사제지간이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이들의 저술이나 행장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원효의 저술은 그 이후 활동했던 경홍懶興, 도륜道倫, 태현太賢 등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태현이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를 집필할 때 원효의 『범망경종요梵網經宗要』를 참고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원효의 저술은 이미 당대當代 중국이나 일본에 전해져 중국과 일본 불교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는 중국과 일본에서 ‘해동海東’ 혹은 ‘해동법사海東法師’로 불렸는데, 우리나라의 별칭인 해동海東을 붙인 것에서 당시 그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중국 화엄교학을 완성한 법장法藏(643~712)은 695년 이전에 완성한 『화엄경탄현기華嚴經探玄記』에서 원효의 저술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돈황석굴에서 발견된 필사본 가운데에는 원효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잔편이 확인되고 있어, 멀리 서역까지도 원효의 명성이 알려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원효의 손자 설중업薛仲業(?~?)이 일본에 갔을 때 『금강삼昧경론金剛三昧經論』에 감명을 받은 관리를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도 일찍이 원효의 저술이 일본에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마쿠라시 대鎌倉時代 일본 화엄종을 대표하는 묘에明惠(1173~1232)와 교넨凝然은 모두 원효를 흡모하였는데, 특히 묘에는 죠닌成忍에게 부탁하여 원효와 의상의 행적을 그린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이라는 두루마리 그림을 남겼으며, 46세 때에는 원효의 『보살계본지범요기菩薩戒本持犯要記』를 강설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원효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진 때는 바로 원효 입적 후 400여 년이 지나서였다. 그 중심에는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1055~1101)이 있었다. 의천은 자신의 형인 숙종肅宗(재위 1095~1105)에게 견의하여 ‘화쟁국사和諍國師’라는 시호를 추증하게 하였다. 이후 명종明宗(재위 1170~1197) 때 원효가 머물렀던 분황사芬皇寺에 『화쟁국사비和諍國師碑』가 세워졌다. 이를 계기로 분황사를 근거로 하는 ‘해동종海東宗’이라는 독립된 종파가 등장하였다.

원효에 대한 연구와 흡모는 오늘날까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원효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사상을 다룬 박사학위논문이 10여 권에 이르는데, 한 개인을 다룬 박사학위 논문이 10권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역사학, 불교학 등 학문 분야에서뿐만 아니라 번역서, 대중서, 소설, 시, 서예와 전각 등 다양한 분야에서 150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원효가 재해석되며 재창조되고 있다.

分別用強遍緣諸事故令此文中就強而說此識不知諸塵
唯識故執心外實有境界凡夫二乘雖有趣向而猶計有
生死可厭涅槃可欣不異分別事識之執故名分別事識
重智意重智亦名業識重智遍而言之五種之識皆名
為意義如上說就本而言但取業識以宣微細作諸識本
故於此中業為本

无別境界解一切法唯是諸量捨前引前順

名識熏習亦名為意動智非謂无明所起業識即無本
終諸行也真如熏習中有三者舉數總標二者依數列名

법장경고적기

梵網經古迹記

태현太賢

35.5x30.0cm

조선 후기 필사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태현太賢(?)이 쓴 「법망경梵網經」에 대한 주석서이다. 그는 원효元曉(643~712), 법장法藏(681~?), 의적義寂 등의 주석서를 참고로 하고, 50종에 가까운 경시와 논서를 바탕으로 주석을 달았다.



*19171

화엄경담현기

華嚴經探玄記

법장法藏

26.7x19.0cm

일본 1702년 목판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60권본 「화엄경華嚴經」에 대한 법장法藏(643~712)의 주석서이다. 이 저술에는 원효의 「화엄경소華嚴經疏」가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권1에는 직접 원효를 언급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소 필사본(敦煌 문헌)

大乘起信論疏 筆寫本(敦煌 文獻)

원효元曉

중국 8~10세기 필사본

British Library

돈황 문헌은 20세기 초 유럽의 탐험가들이 중국 돈황석굴敦煌石窟에서 발견한 문서로, 한문을 비롯하여 티베트어, 산스크리트어 등 다양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오래된 문헌은 4~5세기의 것도 있으나, 대부분 8~11세기의 것이다.

이 필사본은 형거리 태생의 영국인 스타인(Mark A. Stein)이 발견한 것 가운데 하나로, 원효『대승기신론소』의 일부이다.

第五顯於黑地二

識者通而言之七識皆局於別事識而說之。蓋謂
今別用強遍緣諸事故今此文中就強而說此識不知諸塵
唯識故執心外實有境累凡夫二乘雖有趣向而猶計有
生死可厭涅槃可欣不異分別事識之執故名於別事識
重智意重智亦名業識重智通而言之五種之識皆名
為意義如上說就本而言但取業識以資微細作諸識本
故於此中業名矣

无別境界解一切法唯是種量捨前別解

名識重習亦名為意動謂無明所起業識即能生人
彼諸行也真如意識中有三者舉數想據二者依數列者
三者轉相中有二者別明二者合釋初別明中先明自歸重
習於中有二者直明二者還疑初中言具无漏法備有
思識業者是在本覺不空門也作境界之性者是說如
此空門境也依止一境留之力真重妄心全起散惑等

묘에상인상

明惠上人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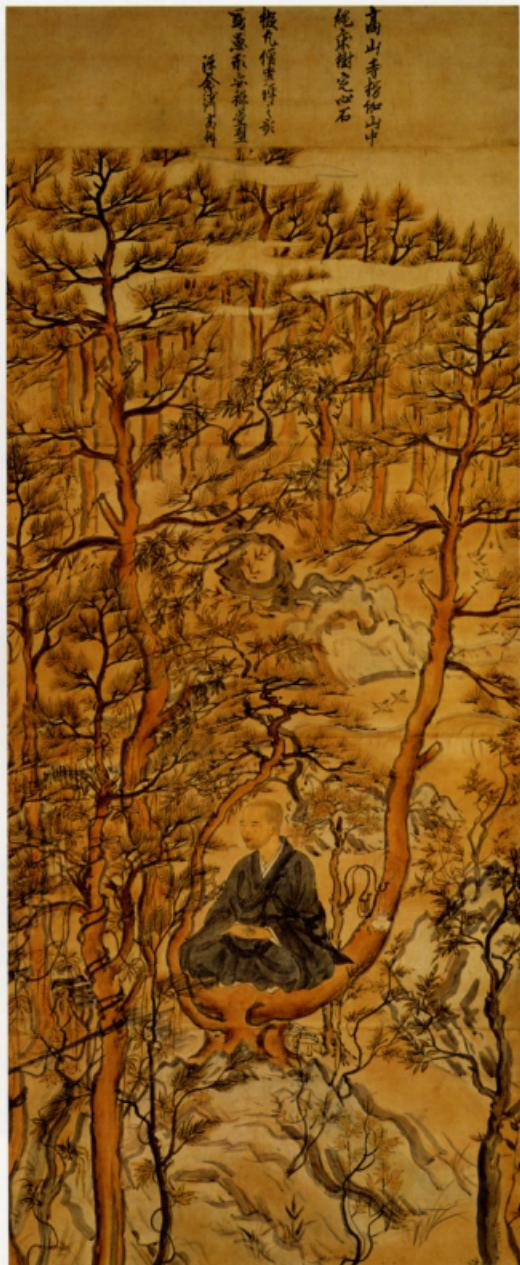
증이에 채색지본彩色

145.0×59.0cm

가마쿠라시(鎌倉時代 1185~1333)

일본 교토·쿄토 고신사·고산사

일본 국보國寶





『화엄종조사회전 華嚴宗祖師繪傳』

-의상 義湘, 원효 元曉와 묘에 明惠

西山 厚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묘에상인상 明惠上人像

12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 일본 불교계는 큰 변화를 겪었다. 호넨法然·신린親鸞·잇펜一遍·니치렌日蓮이 새로운 종파를 개창하고 각자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며 점점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 또 중국에서 선승禪僧이 전해져 선禪을 배우기 위해 중국으로 유학하는 승려도 늘어났고, 그 내용도 점차 일본식으로 변화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한편, 기존 불교의 각 종파 내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그 계기는 지쇼治承 4년(1180년), 나라화공奈良火攻이었다. 당시 겐지源氏와 헤이케平氏 두 무사집단의 다툼으로 일본국내는 내란 상태였는데, 겐지를 지지하던 나라奈良 도다이지東大寺와 고후쿠지興福寺가 헤이케의 공격을 받아 일본 불교의 상징이었던 도다이지 대불이 소실되었다.

이 사건이 일본 불교계에 미친 충격은 어마어마하였다.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하였다. 일부 승려들 중에는 나라가 어지러운 이유를 불교(승려)가 혁탁해진데 따른 것으로 생각하여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승려가 되고자 하였다. 본고의 주인공인 묘에明惠도 그런 승려 중 하나였다.

묘에(1173~1232)는 명리名利만을 추구하는 승려들을 싫어하여 산속에 살며 수행과 학문에 힘썼다. 후에 묘에는 교토에 고산사高山寺를 창건하여 석가모니를 사모하고 계율을 중시하며 화엄교학華嚴教學, 진언밀교真言密敎의 구명究明과 더불어 일반 사람들을 위한 쉬운 수행법을 연구하여 많은 사람들이 귀의하게 되었다.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을 위해 여승방을 세워 그들의 구제에 힘쓴 점 역시 이러한 자세와 맞닿아 있다.

묘에의 주위에는 뛰어난 불상, 불구 제작자와 화가들이 있었는데 당시 제작된 불상과 불화가 지금도 고산사에 전해져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또 묘에는 중국의 선진 불교를 배우는데도 열의를 다했는데, 종래와는 다른 화엄사상이나 그림 양식을 배워 석가의 모습을 직접 지도하며 그리도록 했다.

묘에의 사망 당시 천태종天台宗의 종정宗正 료카이良快는 “천태종의 종정을 성인이라 하는 것은 전대까지로, 지금 세상에는 묘에상人明惠上人과 같은 이를 성인이라 해야 한다”고 서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묘에는 신라의 의상과 원효를 마음 속 깊이 담고 있었다.

의상과 묘에

묘에가 창건한 고산사에는 『화엄종조사회전華嚴宗祖師繪傳』으로 불리는 애마기[繪卷]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의상과 원효의 전기를 그린 그림 두루마기를 총칭하여 이렇게 부르는데, 제작 당시의 호칭은 아니다.

가마쿠라시대鎌倉時代에 제작된 『고산사성교목록高山寺聖教目錄』에서 『의상원효회義相(湘)·元曉繪』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겐초健長 2년(1250) 목록 작성 시에는 「의상·원효회義湘元曉繪」로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각각 「의상회」·「원효회」라는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 후에 전란으로 손상되고 잘못된 수리로 인해 착긴錯簡된 것이 1991년 7월부터 약 6여년에 걸친 수리 끝에 현재 「의상회」 4권·「원효회」 3권의 총 7권으로 복원되었다.

의상과 원효는 모두 신라의 승려다. 의상(625~702)은 신라 화엄종의 시조로 불린다. 우선 『의상회』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하자.

『의상회』는 의상과 원효가 구법求法을 위해 함께 당으로 여행을 떠나는 장면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길가 언덕 동굴에서 밤을 보내게 되는데, 아침이 되어 해골이 어지럽게 널려있는 주변 모습에 놀란다. 그곳은 무덤이었다. 그러나 격렬한 비로 인해 떠나지 못하고 두 사람은 부득이 다음날도 같은 장소에서 잠을 청했다.

그날 밤, 원효는 꿈을 꾸었다. 무서운 귀신이 나온 꿈. 꿈에서 깨 원효는 깨달았다. 무덤인지 몰랐을 때는 편히 잤다. 무덤인 것을 알고는 악몽에 시달렸다. 일체의 법은 모두 이 마음의 변화에 따른 것. 마음 외에 스승은 없다. 원효는 신라에 머물 것을 결심한다.

원효와 헤어진 의상은 해로를 통해 당에 이른다. 당에 도착한 의상은 선묘善妙라는 여인을 만났다. 선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명한’ 미녀였다. 그리고 의상 또한 ‘아름다운 용모의 사람’이었다. 선묘는 의상에게 한 눈에 반해 마음을 고백하였다.

의상은 말했다. “나는 생명을 걸고 계戒를 지키고 있다. 불법의 힘으로 중

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다. 색욕의 세계는 버렸다. 원망하지 말기 바란다.”

선묘는 이 말을 듣고는 바로 도심道心이 일어나 참회하고 울며 맹세했다.
“다시 태어나도 법사에 귀의해 그림자처럼 따르며 반드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의상회』는 『송고승전末高僧傳』을 인용하고 있다. 단교端拱원년(988)에 완성된 『송고승전』에는 선묘를 ‘소녀’로 기록하고 있지만, 에마키에서는 성숙한 여인으로 묘사하였다.

이후 의상은 장안長安 지상사至相寺에서 지엄智儼에게 사사받았다. 이후고 수학을 마친 의상은 지상사를 떠나 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의상의 귀국을 알게 된 선묘는 의상을 위해 여러 가지 물건을 준비해 상자에 담았다. 그러나 배가 이미 항구를 떠난 것을 알게 된다. 선묘는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해변을 보았지만 아득히 먼 바다에 의상이 탄 배의 둛만 보일 뿐… 선묘는 들고 있던 상자를 떨어뜨리고는 해변에 쓰러져 흐느껴 울었다.

이윽고 선묘는 일어서서 상자를 줍고는 바다에 던졌다. 울다 지친 선묘의 체념한 듯한 온화한 표정이 가련하다.

진정한 듯한 선묘는 돌연, 바다를 향해 몸을 날렸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해변 사람들. 그러나 바다에 몸을 던진 선묘의 표정은 웬지 평온하다. 행복하게 잠든 듯이 눈을 감고 미소를 짓고 있는 듯 보인다.

일렁이는 물결이 선묘를 삼켰다. 작은 선묘의 모습은 파도 사이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 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먹구름이 솟고 번개가 치며 거대한 용이 해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선묘가 용으로 변한 것이다. 악동 하는 지체, 기백이 가득 찬 눈빛으로 전방을 응시하며 용은 배를 쫓는다.

한편, 배 안. 의상은 기력 없는 표정으로 그려져 있다. 살펴보면 선묘가 바다에 던진 상자가 배 측면에 표류하였고 의상은 상자를 걷어 안을 열어 보고 있다. 에마키에서 친숙한 이시동도법異時同圖法이다. 그러나 의상의 이 석연치 않은 표정은 어떻게 된 것일까?

어느새 좋아온 용은 배를 등에 실고 신라로 향한다. 의상의 본국인 신라로, 배를 등에 실은 용의 표정이 바뀐다. 온화하고, 만족한, 조금은 자랑스러운 표정. 배를 죽고 있을 때의 엄중함은 없다.

이러한 미묘한 마음의 변화를 정확하게 그려낸 화가의 역량이 대단하다. 그렇다면 석연치 않은 듯한 의상의 표정은 화가가 의도적으로 그린 것인지, 혹은 화가가 의상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았던지 둘 중 하나일 것이다. 아무래도 『의상회』의 주인공은 의상이 아닌 선묘인 듯하다.



화엄종조사회전 의상회

華嚴宗祖師繪傳 義洞繪

선묘가 의상에게 고백하는 장면

의상에게 구애하는 선묘. 배가 이미 출발한 것을 듣고 얼굴을 가리고 우는 선묘. 해변에서 통곡하는 선묘. 상자를 바다에 던지는 선묘. 바다로 몸을 던지는 선묘. 배를 쫓는 용이 된 선묘. 배를 등에 실은 용 선묘. 각각의 장면에서 선묘의 마음의 변화, 기쁨과 슬픔이 서로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다. 선묘에 대한 깊은 애정 없이는 이런 에마기는 제작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는다. 신라로 돌아간 의상은 절을 지으려고 했지만 방해를 받는다. 선묘는 이번에는 가로세로 각각 1리(약 3.93km)나 되는 큰 돌이 되어 공중에 떠올라 방해자를 쫓아버린다. 이렇게 해서 절이 완성된다. 절의 이름은 부석사浮石寺. 「의상회」는 부석사에서 설법하는 의상을 그리며 마친다.

「의상회」의 말미에는 놀라울 정도로 긴 설명문이 달려있다. 남아있는 것은 155행 정도이며 앞부분이 결실되어 있으므로 실제로는 이보다 더 길었을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드문 경우지만, 내용 또한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이 긴 설명문은 온갖 미사어구를 사용하여 선묘를 칭송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불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례적인 설명문의 마지막에는 이 글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다.

“선묘가 법문法門에 귀의한 것은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충분하다. 의지를 품은 깊은 뜻은 그림을 빌려서는 부족하다. 따라서 성인의 가르침으로 그 대강을 나타낸다.”

선묘는 불법에 귀의했다. 그것은 그림만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묘가 불법에 귀의한 것에 담겨진 깊은 의미는 그림만으로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불전佛典을 인용한 긴 설명문을 작성한 것이다.

화엄종조사회전 의상회

華嚴宗祖師繪傳 麥湘繪
용으로 변한 선묘가 의상이 탄 배를 살고
신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보자.

'이 또한 공경에 의해서 사랑을 이루는 바이다' 선묘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 설명을 썼다고 한다. 이러한 설명을 들 수 있는 이는 묘에밖에 없다.

묘에는 선묘의 꿈을 꾸었다. 죠큐承久 2년(1220) 5월 20일 밤의 일이었다. 당에서 건너온 향로 안에 5촌(약 15cm)크기의 당나라 여인 모양의 인형이 있었는데, 일본에 온 것을 한탄했다고 한다. 묘에가 캐물어보니 인형이 수긍한다. 묘에가 "귀여워해 줄 테니 읊면 안돼"라 해도 머리를 좌우로 흔들 뿐. 잠시 후 또 꺼내 보니 눈물을 흘리고 있다. 묘에가 "나는 대성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다"고 말했다. 인형은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귀여워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묘에가 승낙하니 금방 살아있는 여인으로 변했다. 어느 사람이 그 여자는 뱀과 통했다고 말했다. 묘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뱀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꿈에서 깐 묘에는 "이것이 선묘다. 선묘는 용이고, 또 뱀이다. 다기가 되고 돌이 되다."라고 기술하였다. 돌이 된 선묘가 묘에의 사랑으로 살아있는 여인이 된 생생한 꿈이었다.

가로쿠嘉祿 원년(1225), 고산사의 수호신鎮守으로 세 개의 신전이 건립되었는데 그 중 하나에 선묘가安置되었다. 신이 아닌 선묘를 신으로 모신 것은 묘에의 생각으로, 선묘가 화엄옹호華嚴擁護를 맹세했기 때문이었다. 고산사에 전해오는 선묘상은 이 수호신으로安置되었던 상으로 추정된다. 높이 31.4cm, 당시唐衣를 걸치고 바다 속에 던진 상자를 들고 서있는 사랑스러운 소상으로, 불사 단케이湛慶가 제작하였다.

고산사의 별원別院 젠묘지善妙寺는 죠큐承久의 난이 계기가 되어 건립되었다. 죠큐 3년(1221) 5월, 고토바텐노後鳥羽上皇은 가마쿠라막부를 넘어뜨리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지만 대패했다. 교토의 중심 인물 중 하나인 나카미카도무네유기中御門宗行가 처형되자 그의 아내는 출가해 비구니가 되어 절을 지었는데 이곳이 젠묘지다. 젠묘지는 죠오貞應 2년(1223) 7월에 완성되어 고산사의 별원이 되었다. 젠묘지에는 많은 비구니가 있었는데 모두 죠큐의 난으로 남편과 사별한 여성들이었다. 젠묘지의 이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선묘에서 딴 것이다.

조큐 2년(1220)의 꿈, 죠오 2년(1223) 젠묘지 건립, 가로쿠 원년(1225)의 조상造像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묘에는 선묘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의상회』는 누가, 언제, 왜 제작한 것일까?

『의상회』는 선묘를 찬양하고 선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한 그림이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송고승전』에 수록된 의상전에서 발췌했지만 주인공은 의상이 아니라 선묘로 바뀌었다. 이것은 묘에의 생각일 것이다. 설명문도 묘에가 작성한 것으로 봐도 좋다. 그림만으로는 알 수 없는 깊은 뜻을 전하기 위해 긴 설명을 덧붙였다.

『의상회』를 젠묘지 창건과 연결시켜 젠묘지의 비구니를 교화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설이 유력하지만, 찬성할 수 없다. 또, 죄규의 난 이전에 독삼위국(督三位局·고산사 대원주 大願主)을 위해 제작되었다는 설도 있지만 여기에도 찬성 할 수 없다.

죄규의 난 이전에 묘에가 보았던 선묘의 꿈은 너무도 생생해 『의상회』와는 다른 인상을 받게 된다. 꿈 속의 선묘는 아직 신이 아니다. 보다 수 년이 흐른 후 고산사의 수호신인 세신祭神으로서 선묘상이 제작된다. 선묘는 언제 신이 되었을까? 필자는 꿈에서 만난 선묘와 신상화神像化한 선묘를 이어주기 위해 『의상회』가 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선묘의 행동을 바르게 해석하고 돌이 된 선묘를 구해 내듯이, 선묘가 신으로 모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 선묘에 대한 사랑을 담아 묘에가 『의상회』를 제작하였을 것이다.

선묘가 큰 돌이 되어 공중에 떠올라 훠방놓던 자들을 쫓아버리고 세운 절 부석사는 676년에 창건되었다.

필자가 부석사를 처음 방문한 것은 1995년 5월이었다. 부석사는 경상북도 영풍군 부석면 북지리, 영주에서 북쪽으로 20km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누각 형태의 안양문 安養門을 지나면 본당本堂 무량수전 無量壽殿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 본당은 고려시대 말기에 지어진 한국 최고의 목조 건조물이다. 본존은 아미타여래로 건물 정면에서 바라보면 본존이 옆(동남)을 향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본당의 왼쪽 뒤편에는 거석巨石이 있다. 이것이 전설의 바위이다. 중앙에 커다랗게 횡으로 갈라진 틈이 있어 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좀 더 산길을 오르면 조사당 祖師堂이 있다. 의상의 상 오른쪽 벽에는 선묘가 그려져 있다.

의상의 저서는 많지 않다. 『화엄일승법계도 華嚴一乘法界圖』뿐이라 해도 좋다. 이것도 통상적인 서적은 아니다. 210자의 문자를 선으로 연결한 그림과 같은 것이다. 전라남도 화엄사 華嚴寺에서는 지금도 승려가 이것을 주창하며 경내를 걷는다. 『고산사성교목록』에 보이는 의상의 유일한 저작은 『화엄일승법계도』이며 원효의 저작은 19종이나 된다. 단순히 숫자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

지만 묘에에게 있어 의상은 화엄 조사로서 그만큼 중요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효는 묘에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 왜 「원효회」가 제작되었을까?

원효와 묘에

고산사에 전해오는 「화엄종조사회전」 중에서도 「의상회」의 진정한 주인공은 의상이 아닌 의상을 사모한 선묘라는 여성이었다. 「의상회」는 선묘에 대한 사랑을 담아 묘에가 제작한 애마기이다. 그럼 「원효회」는 어떻게 제작되었을까?

원효(618~686)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사상가로 불린다. 스승 없이 불법을 배우고 결혼해 아이도 얄었다. 그 후 속세에서 수없이 많은 마음을 들며 사람들을 교화했다. 저작도 많다.

화엄종의 조사祖師로는 화엄교육을 대성한 당나라 법장法藏(643~712)을 떠올리기 쉽다. 그 법장도 원효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에 큰 영향을 받았는데, 과계승이면서도 원효는 화엄 조사의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원효회」의 제작 배경에는 묘에의 광명진언신앙光明真言信仰에 있다고 한다. 광명진언은 대일여래大日如來의 진언으로, 이 진언에서 가지加持한 모래를 망자에게 뿌리면 생전에 지은 죄가 사라진다고 한다. 이 「광명진언토사가지光明真言土砂加持」를 보급시킨 이가 묘에다. 묘에가 광명진언토사가지의 문현상 근거로 본 것이 「유심안락도遼心安樂道」로, 필자는 (그 당시에는) 원효라고 생각했다. 「원효회」가 제작된 것은 원효의 행덕을 칭송하여 광명진언토사가지를 지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 광명진언토사가지를 믿고 있는 묘에에게 귀의한 귀족들이 작선作善(선을 쌓는 것)을 목적으로 원효의 행덕을 칭찬하고 감탄한 이 그림을 제작했다는 설도 있다.

나는 이러한 설에 찬성하지 않는다. 확실히 묘에의 만년 저작은 그 내용 대부분이 광명진언에 열중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광명진언토사관신기光明真言土砂勸信記」에 '이 대사(원효)는 화엄종의 조사이며 그 행덕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언급하는 등 화엄종 조사로서 원효를 칭송하는 말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원효는 특히 마음을 법문으로 맑게 한다」는 표현은 그야말로 묘에다운데, 묘에가 원효에 대해 경의와 친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원효회」와 광명진언토사가지의 관련을 부정하는 것은 「원효회」에 광명진언토사가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

이다. 「원효회」의 제작 목적은 다른데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원효회」와 광명진연토사가지의 관련을 인정하지 않는 설도 이미 있다. 원효의 행장에 묘에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을 근거로 묘에의 사후, 묘에에 대한 추모로써 제자와 귀의하는 사람들과 협력으로 제작되었다는 설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찬성 할 수 없다. 묘에의 사후라면 일부러 원효에게 묘에를 겹치지 않더라도 묘에의 전기회傳記繪를 제작하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원효회」를 꼼꼼하게 살펴보자.

「원효회」의 권두卷頭은 유실되었다. 현재는 원효와 의상이 길가 언덕 동굴에서 밤을 보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당으로 향하는 구법 여행 중이다.

날이 밝자마자 눈에 보이는 것은 어지럽게 널린 해골, 그 곳은 무덤이었다. 그러나 죽어가는 비로 인해 출발하지 못하고 부득이 그 날도 같은 곳에서 잠들게 되었다.

그날 밤, 원효는 꿈을 꾸었다. 무서운 귀신 꿈. 경직된 듯이 손을 들어 손가락을 뻗은 채 악몽에 시달리는 원효의 모습. 다른 편에서 자고 있는 의상과는 대조적이다.

이 원효의 얼굴이 묘에의 초상화와 매우 닮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것이 원효와 묘에가 겹친다는 논거가 된다. 그러나 두 얼굴이 닮았던 하지만, 아주 비슷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원효의 얼굴 생김새는 모든 장면에서 같지 않고, 꿈꾸고 있는 원효와 꿈꾸는 사람인 묘에와의 관련성에서, 이 장면의 원효를 묘에와 닮게 했다는 지적도 있지만 악몽에 시달리는 원효를 일부러 묘에와 닮게 그린 것으로 생각하기는 힘들다. 「의상회」나 「원효회」의 인물 표현은 중국의 나한화羅漢畫에 근거하고 있어 묘에의 초상화에도 나한상이 겹친다고 한다. 같은 토양에 편 동종의 꽃이 비슷할 뿐인 것은 아닐까?

그런데 꿈에서 깨난 원효는 깨달았다. 무덤인지 모르고는 잘 잤다. 무덤인 것을 알고 나니 악몽에 시달렸다. 마음 외에 불법은 없다. 마음 외에 스승을 찾을 필요는 없다. 원효는 신라에 머물기로 결심한다. 여기까지는 「의상회」와 같은 구성이다.

이후에 원효는 길거리에서 거문고를 연주하거나 경론에 주석을 달아 법회에서 강찬하거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벼랑 위에서 좌선을 하거나 해변에서 달을 읊는 등 무엇에도 얹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날들을 보내낸다. 국왕이 개최한 인왕회에서는 '원효법사는 그 행동이 광인같다' 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 초청되지 못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벼랑 위에서 좌선하는 원효. 신라 어딘가였을 테지만, 떠오르는 익숙한 장소가 있다. 젊은 날 묘에가 수행한 기슈紀州의 서백상



화엄종조사회전 원효회

華嚴宗祖師繪傳 元曉繪

귀신鬼神 꿈을 꾼 원효元曉



화엄종조사회전 원효회

華嚴宗祖師繪傳 元曉繪

거문고를 타는 원효元曉

西自上이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바다는 탕천만湯淺瀾. 묘에는 혼자서 바다를 보며 학문과 수행에 힘쓰고 있었다.

이와 같이 「원효회」에 묘에의 행장이 투영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얼굴을 닮게 하였다면 왜 이 장면에서 묘에와 닮지 않았을까? 원효의 얼굴 생김새는 수상좌선樹上坐禪의 묘에상과는 전혀 닮지 않았다. 얼굴을 닮게 하지 않더라도 행장이 겹쳐 보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의 제자 기카이喜海가 기술한 『묘에상인행장明惠上人行狀』을 보면, 묘에는 달과 더불어 배를 내어 탕천만에 떠있는 예조도列藻島로 건너갔다. 동그런 달빛아래 묘에는 두 명의 인물을 생각하였다는데, 바로 덕운비구德雲比丘와 원효이다.

덕운비구는 『화엄경華嚴經』에 등장하는 승려로, 12년간이나 바다만을 끊임없이 응시한 사람이다. 어느 날 바다에서 큰 연꽃이 나타나 그 위에 앉은 여래가 덕운비구에게 보안普眼의 불법을 밝혀낸다. 그리고 원효는 죽은 자의 사당에서 묵으며 심심유식甚深唯識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동근 달빛 속에서 바다를 보라보며 묘에는 기카이에게 덕운비구나 원효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이다. 기카이에게도, 그리고 묘에에게 귀의하는 사람에게도 덕운비구·원효·묘에는 하나의 세계로 응합되고 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벼랑 위에서 좌신 하는 「원효회」의 원효. 이것은 묘에이기도 하고 덕운비구이기도 하다. 눈앞의 바다는 묘에가, 그리고 덕운비구



화엄종조사회전 원효회

華嚴宗祖師繪傳 元曉繪

벼랑 위에서 좌선坐禪하는 원효元曉

가 보았던 바다이기도 하다. 그리고 「원효회」에서는 바다에서 떨어진 해변에서 달을 읊는 원효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이 묘에이기도 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원효회」는 여기서 화제가 바뀐다. 원효는 얼마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왕비가 무거운 병에 걸린다. 왕비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국왕이 칙사를 당에 보내는 것으로 권1이 끝난다.

권 2에 들어가면 배를 이용해 당으로 향한 칙사가 노인을 한 명 만나는데, 그의 인도로 용궁에 이른다. 용왕은 칙사에게 『금강삼매경金剛三昧經』이라는 경전을 주며 말했다. 대안성자大安聖子에게 품品별로 나누게 하고, 원효 법사에게 주석서를 만들게 하여 법문을 강의하도록 하면 왕비의 병은 치유될 것이다. 용왕은 칙사의 정강이를 갈라 『금강삼매경』을 넣었다.

『금강삼매경』을 가지고 돌아온 칙사의 이야기를 듣고 국왕은 곧바로 대안을 맞이했다. 대안은 지저분한 옷을 두르고 “대안, 대안”이라 부르며 종을 치며 저잣거리로 떠돌고 있었다. 에마기繪卷에는 저잣거리의 상황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다. 대안은 국왕의 청을 거절했다. 이렇게 사람 축에 들지 못한 사람이 왕궁에 가 어떤 이유이 있을 것인가? 그러나 칙사가 『금강삼매경』을 보내자 대안은 물품 분류하는 일을 받아 들였다. 초가지붕 암자 속의 탁상에 경권을 펼치고 품류를 나누기 위해 사색에 빠지는 대안을 그리며 2권이 끝난다. 2권에 원효는 등장하지 않는다. 설명에 이름이 보일 뿐이다. 주인공은 대안으로 보이며 원효를 잊은 것 같다.

권3은 칙사가 대안이 있는 곳에서 8품으로 나눈 경전을 왕궁에 보내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기뻐한 국왕은 원효에게 칙을 내려 주석서를 만들어 강의하도록 명했다. 명을 받은 원효는 5권의 소疏를 완성하지만 원효를 시기하는 사람에게 도둑맞는다. 범회까지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원효는 불과 3일 만에 재차 3권의 약소略疏(『금강삼매경론』)를 저술했다. 강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어 왕비의 병이 치유되었다.

이 「원효회」의 내용은 「의상회」와 마찬가지로 『송고승전』을 참고하고 있다. 「의상회」에서 선묘와 관계없는 전기의 후반부를 생략한데 비해, 「원효회」는 몇 군데를 제외하면 『송고승전』의 내용을 매우 충실히 따르고 있다.

「원효회」과 『송고승전』 「원효전」의 차이점으로 주목 해야 할 부분은 해변에서 달을 읊는 원효를 에마기에서는 중요한 모티프로 그리고 있는데, 『송고승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볼 수 없는 점이다. 이것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에마기에서는 원효에게 묘에의 행장을 겹쳐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송고승전』 「원효전」에는 무덤에서 귀신을 본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송고승전』 「의상전」

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송고승전」에는 원효가 술집이나 창가에 간 기록이 있는데 반해, 에마키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대신, 설명문의 '승려의 계율을 잊은 것 같다'라는 것이 그 완곡한 표현으로, 이것도 「송고승전」을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원효회」가 「송고승전」과 다른 또 하나의 점은 대안에 관한 언급이다. 물론 「송고승전」「원효전」에도 대안이 등장한다. 그러나 「원효회」의 대안은 또 한 사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송고승전」은 '항상 시전市應에 있다'고밖에 기술하지 않았지만, 「원효회」에서는 큰 부분을 시전의 묘사에 소비한다. 물고기나 옷감을 파는 사람, 벳돼지나 산양을 끄는 남자, 아이를 동반한 부인, 싸움을 하는 남자들 등이 생생히 그려진다. 「원효회」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속되는 장면에서는 칙사로부터 경권을 받아들이는 대안을 보며 종자가 "무척 높으신 스님인가 보군"라며 중얼거린다. 이 종자의 이야기도 「송고승전」에는 없다. 원효를 칭송하는 전기에는 쓸데없는 말일 것이다. 이 에마키가 찬양하는 것은 원효만이 아니다. 대안 또한 찬양의 대상이다. 대안과 마찬가지로 묘에도 스스로를 '비인非人'이라 불렸다. 원효만이 아니라 대안에서도 묘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대안도 찬양하는 에마키라는 점에서 제작 목적으로 광명진언토사가지를 지지하는 설은 성립되지 않는다.

「원효회」의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의 저자로서 찬양받고 있으므로 광명진언토사가지와는 관계가 없다.

「원효회」 제작에 묘에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고 본다. 묘에가 스스로를 원효나 대안과 겹치도록 그리게 했다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묘에가 「의상회」를 제작할 때는 「원효회」의 제작이 예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효회」는 묘에의 생전, 「의상회」의 제작 후에 묘에에게 귀의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 화엄종 조사의 에마키로서 「의상회」와 대응되도록 「송고승전」에 의거하여 원효와 대안에 묘에를 겹쳐 제작한 것으로 생각한다.

1914년 5월 9일, 경주 암곡리에서 갈라진 비석이 발견되었다. 바로 원효의 생애를 세긴 서당화상비舊轍和上碑 아랫부분 반쪽이었다. 이것으로 원효의 입적 연월일이나 장소 등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다.

원효의 아들은 설종업薛仲業이며 신라 10현의 한 사람이다. 또 그 아들, 즉 원효의 손자 설중업薛仲業은 호우기寶龜 10년(779)에 신라사신 일행으로 일본을 방문했다. 설중업은 크게 환대받고 시를 받았다. 원효의 손자였기 때문이다. 그 시의 서문이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데, 「금강삼매경론」을 저술한 원효의

손자와 만난 것을 기뻐하는 내용이다. 나라시대에는 원효의 저작이 60종 이상이나 일본에 전해졌고, 그에 대한 평가도 대단히 높았다. 그 중에서도 『금강삼매경론』은 중국에서도 절찬絶讚된 명저였다.

원효는 경주 분황사 芬皇寺에 살며 『화엄경소華嚴經疏』 등을 저술했다. 분황사는 634년에 창건 된 고찰로 석축방형기단 위에 세운 모전석탑이 유명하다. 탑 근처에 비좌碑座가 남아 있는데 일찍이 그 위에 화쟁국사비和諍國師塔碑가 세워져 있었다.

원효는 경주 고선사 高仙寺에도 살았다. 현재, 고선사는 덕동호 바닥에 잠들어 있다. 그 무엇에도 얹매이지 않았던 원효이니, 살고 있던 절이 호수 바닥에 가라앉더라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고선사 삼층석탑은 국립경주박물관 마당에 옮겨져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도 볼 수 있다.

董源文宗大王第三子宋哲宗皇帝对马图碑

士辰恭奉錢塘惠勤拜手敬贊

日在勝國禱雲寫寫甚垣慧月影落小海閑世挺生粹賦傑魁群達威文身
列舉雷崩雲水大載東經得盈西游名翼揚彩天子迎勞金門大闢尊師杜學
以戒母慈難革輪鈔咀嚼因呻苦養繙氣苦樹舊蓄瓶滿十谷法乳四通御珠還
潮銀磊磊魚或獻琛金鑄玉琳萬續漫寂三光環辟廟市福素禁叶蘋迷闇鑿金
君命文相勸切冀藉藉七合清葉龍種晶光家翰題贊龍章米末



흥왕사 대각국사 묘지명

興王寺大覺國師墓誌銘

비호각고 글 고세침高世偁 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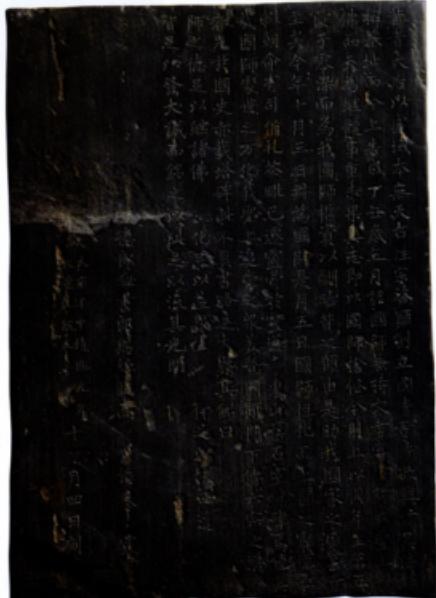
42.0×29.4cm

고려 1101년

국립중앙박물관



앞면前面



뒷면後面

대각국사 진영

大覺國師 眞影

비단에 채색絹本彩色

129.0×104.5cm

조선 1805년

선암사 성보박물관

보물 1044호

영동사 대각국사 비(탑본)

靈通寺大覺國師碑(楊本)

김부식金富軒 글 오언수吳彦修 글씨

292.4×158.0cm

고려 1125년

국립중앙박물관



선봉사 대각국사비

傳鳳寺大覺國師碑

임종林存 글 덕린德麟 모오妙悟 글씨

197.0×182.0cm

고려 1132년

경부 칠곡군 선봉사

보물 제251호



대각국사문집 신편제종교장총록서

大費國師文集 新編諸宗教藏總錄序

의천義天

29.8×20.6cm

1943년 해인사海印寺 인출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은 대각국사大覺國師 의천義天(1055~1101)이 중국과 한국의 승려들이 쓴 1,085부 4,858권의 저술을 수록한 책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없고 일본 고산사에 필사본과 목판본이 남아있는데, 이 책에는 원효의 저서 44부 87권이 수록되어 있다.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에는 그 책의 서문인 「신편제종교장총록서新編諸宗教藏總錄序」가 수록되어 있다.



신편제종교장총록 필사본(영인본)

新編諸宗教藏總錄 筆寫本(影印本)

의천義天

27.8×22.4cm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대각국사문집 제분황사효성문

大覺國師文集 祭芬皇寺曉聖文

의천義天

30.8×20.6cm

1943년 해인사 海印寺 인출 목판본

국립중앙도서관

의천義天(1055~1101)이 분사芬皇寺에 들러 원효에게 올린 제문祭文이다. 의천은 이 글에서 원효를 '해동교주海東教主 원효보살元曉菩薩'이라 찬양하였으며, 원효의 사상을 요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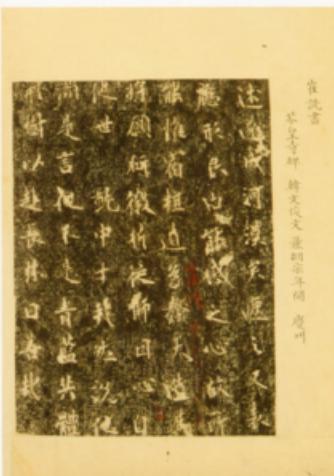
고려 숙종肅宗(재위 1095~1105) 6년(1101) 원효대사에게 화생국사和諍國師의 시호가 내려졌는데, 이 때 이미 의천은 열반에 든 뒤였다.



금석청원

金石清玩
조숙趙諫
39.1x25.7cm
조선 1655년
국립중앙박물관

『금석청완(金石清玩)』은 효종孝宗 6년 조숙趙諫(1595~1668)이 편찬한 것으로,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120여 점의 금석문 탑본을 수록한 책이다. 이 가운데 고려시대의 금석문을 묶은 책 안에는 고려 명종 20년(1109)에 세워진 분황사(分黃寺) 화생국사비(和諍國師碑) 일부의 탑본이 수록되어 있다. 화생국사비는 최유정(崔惟清) 1095~1174)이 짓고, 최선(崔愬) 1209)이 글을 썼다고 하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서는 한문준(韓文俊) (?~1190)이 지었다고도 한다.



화장국사비좌

和諧國師碑座

높이 53.0cm

고려 1190년

경주 분황사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97호



題金 碑師靜此
記正

眞 朝之國和

제김 비사정차

기정

眞 月지국화



추사 秋史 김정화 金正喜가

화장국사비 和諧國師碑에 새긴 글씨

東國李相國集 小性居士贊

이규보李奎報(1168~1241)

28.0×19.5cm

조선 목판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은 고려 중기의 문인 이규보李奎報(1168~1241)의 문집이다. 「소성거사찬小性居士贊」은 이규보가 종령수좌宗齡首座 이인로李仁老(1152~1220)가 소장하고 있던 환속 이후의 원효대사 진영을 보고 지은 시이다.

머리를 깎으면 원효대사요,
머리에 두건을 쓰면 소성거시로다.
온갖 몸으로 헌신해도 알아보기 쉬우니
두 모습 가졌으나 한바탕 연극인 것을

耀駕輸出之仍賜擾軒七寶飾若人四讀未折
理心猶其心舌其舌是舌非舌心非心然後乃
得真寂滅弟子居士字春卿稽首妙法蓮華經
劫劫生生願受持僅見言處青蓮生

小性居士贊 并序

予於聆首座足庵見小性居士真敢
剝而髡則元曉大師髮而巾則小性居士雖現
身千百如指掌耳此兩段作形但一場戲

布帛和尚贊

丈背經頌之未及首品之終師焚香
危坐而聽曰老僧自少業是經猶未
頌一卷品而子之捷若是豈宿劫所
習耶因復以止觀大義略指導之予
頗窺一斑退作法華經頌奉呈云
法華頌

佛以衆生顛倒故從權引喻導實性會三趣一
理難窮不二門中超衆聖譬如日到天中央此
是亭午盤無影時諸天人皆諦聽六十小劫如
食噴泉哉三界苦煎熬有類諸子遊火宅初將

매월당집 무쟁비

梅月堂集「無諍碑」

김시습金時習(1435~1493)

30.0×19.7cm

조선 1867년 연월자본

국립중앙도서관

『무쟁비』無諍碑 매월당 김시습이 분황사芬皇寺에 있는 화쟁국사비和諍國師碑를 보고
지은 시이다.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신라 이승 원목씨가
머리 깎고 신라의 저지에서 도 행한 것을…
다만 내 옛 것 좋아해 뒷짐지고 일자만
아 서쪽에서 오는 조사 보지 못했더라

龍湫

佛門常識卷之三下

波瀾亭蓄是龍湫神物蜿然黑處遊莫道澗潛但貪睡早天霖雨此曾求
無諍碑

君不見新羅異僧元旭氏削髮行道新羅市入學唐法返桑梓連同鄉自行問里
街童巷婦得容易指云誰家誰氏子然而步行大無當騎牛演法解衣首諸經統
持蓋巾箱後人見之爭仰企追封國師名無諱動或直至願慕美闌上金屑光輝
々法書好辭亦可喜我曹亦是善幻徒其於幻語商略矣但我好古負手讀吁嗟
不見西來士

東亭玩月對友

此夜東亭月正圓異鄉節物倍依然滿庭黃葉無人掃一道川聲擾客眠莫諱前
朝清感慨且看今夕桂嬋娟天涯飄泊行裝淡只有詩囊背後懸
芬皇寺石塔

石塔正疇鋤卯看難辨學府々春草長級々鮮花墳空洞元無佛詞搆像似蠻然
々千古事不及一欵聞

東川寺看四季花

四季花之長春者也京都地寒雖栽於暖處猶且凍葵南國地暖既於
露地經冬不彫得暖日苦雷經夏及冬至後枝々盛開可喜也此花寺
佛階前看時正月也

日暖風和春晝長賦千尋透群芳南方不惜栽培力晴日照爛仰覺陽

綠樹陰々繞一亭蚊陽芳草長前青一鄉斯友琴棋散時有清風拂四檻

奉德寺鐘

二姓既已沒金氏方主張末葉廿三代墨胡來西方因緣禱福說求謁法興王劍
寺興因俗寘作民津梁厥後惠基王營寺東川傍招提久莫量鍾大途魯莊豈無

원효『십문화쟁론』의 구절을 소재로 한 서예 작품

書 藝 作 品

안광석安光碩

종이에 잉크本墨書

135.7×34.7cm

개인



원효『금강삼매경론서』를 새긴 전각 작품

篆 刻 作 品

안광석安光碩

돌 石

4.5×4.5cm 내외

인상빈



원효를 주제로 한 소설

元曉主題小說



원효 관련 각종 저술



나가며 EPILOGUE

원효대사는

줄가出家 깨달음悟道, 환속還俗, 중생제도衆生濟度 …
치열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금강삼昧경론金剛三昧經論,

십문화쟁론十問和諍論, 판비량론判比量論 …

수많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신라사회新羅社會에서 점차 잊혀졌습니다.

고승대덕高僧大德으로 세상에 이름을 남기기보다

낮은 곳으로 임하여 중생들을 한 명이라도 더 깨달음으로
이끌고자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중생衆生의 마음 우주 만물萬物의 근원이라 믿고

감등葛藤과 대립對立을 넘어 하나가 되기 위해

일체의 걸림 없이 대중교화大眾教化에 힘썼던 원효대사.

대사의 일심一心, 화쟁和諍, 무애無碍 사상은

공간을 뛰어 넘어 중국中國, 일본日本, 인도印度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고려시대 대각국사大覺國師에게,

여러 종파의 승려에게, 조선시대 유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 사상의 진정한 첫새벽을 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효대사는 어떤 존재인가요.
연구 저서와 논문에서도
한국의 위인전에서도
춘원의 소설로, 활동규의 시로, 때론 만화로도
읽히고 또 읽습니다.
원효사, 원효암… 원효대사가 창건하였다는 수많은 절들
원효로와 원효대교처럼 길과 다리 이름에 왜 '원효' 가 존재할까요.

마음이 아닌 사물을 중심에 둔
자기를 낮추길 주지하는
남과 어울리기에 인색한 요즘 세상에서
천삼백여 년 전
그것들을 뛰어 넘은
스님, 원효 스님이 더욱 그립습니다.

아, 첫새벽처럼 빛나는 원효 스님이시여!